

금주의 기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견디며 그 넘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
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시련하려
고 오는 불시험을 이삼한 일 당하
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13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4월 14일 (토) 제 167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월드, IS축출 후 교회주도 재건운동 중인 니네베 현지 분위기 보도

IS 축출이후 다시 평화를 찾은 이라크 북부 니네베(니느웨)에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재건 열기가 솟아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도, 안전도 그리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미 정든 고향을 떠난 수십만 명의 실항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들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오랜 역사동안 크리스천들의 주거지였던 니네베는 IS가 점령하고 나자마자,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 IS는 먼저 크리스천 근절 정책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14,000가정들을 축출하고 인근 지역에 살던 90,000명의 크리스천들까지도 쫓아냈다. 그리고 교회와 부속 건물들, 가옥 그리고 관공서들까지 파괴하고 불태워, 한마디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폐허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니네베 지역 콰라코스에는 IS 점령 직전인 2014년 무려 6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앗시리안케톨릭, 동방정교회 교인들로 IS의 무자비한 크리스천 말살 정책으로 2016년 거의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떠난 도시에는 시체들이 썩는 냄새와 메탈이나 중금속들이 타면서 나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여기저기 매설된 대인 지뢰들 때문에 손쉽게 다가가 수 없는 ‘죽음의 도시’가 돼버렸다.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니네베 지역 신교 성직자들은 미사나 예배와 함께 교회 사무실에서 어떻게 하면 죽음의 도시를 예전처럼 활발하게 모든 활동들이 일어나는 도시로 재건할 수 있는가에 열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라크 정부의 지원도 없고, 그나마 유입되는 UN이나 미국의 자금도, 무슬림들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들에만 지원되기에 이제 다시 고향을 찾아오는 크리스천 실항민들이 생존해야 할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근간 시설인 도로, 상수도, 전기 그리고 대중교통이 회복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도시의 인프라를 IS가 철저히 파괴시켰기 때문이다. 니네베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할 정도로(창10:8-12), 중동지역에서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진 크리스천 밀집 거주 지역이었기에, IS는 전략적으로 도시 자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다시는 어떠한 크리스천도 살아나갈 수 없는 지역으로...

12,970가옥들, 363개 교회들, 140개 관공서들이 파괴돼 재건 비용만 2억3천8십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그 끝자락엔 새벽이 가깝듯이 지역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재건위원회(NRC) 주도로, IS의 만행을 피해 고향을 등진 실항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니네베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월드지는 니네베에서 이러한 재건 운동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준다(Starting from zero: Iraq's Nineveh churches are retaking their towns from years of ISIS control, without guarantees of money, safety, or a future).



니네베 지역 상점들이 많은 거리. 왼쪽이 2017년 2월, 오른쪽이 2018년 3월 모습.

이러한 땅에 3만7천명의 크리스천들이 돌아왔고 동시에 2만5천명이 해외로 아주 이주했다. 따라서 니네베 지역 교회 리더들은 하루라도 재건이 지연되면 고향을 아예 등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에, 바로 지금 재건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향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까지도 등질 수 있는 이주민들의 발생은 또한 이라크에서 소수인 기독교의 임지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기에 탄탄한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재건을 서두르고 있다.

다행하게도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크리스천 NGO들이다. 현재 가장 많은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NGO는 “사마리아인의 집”으로, 네덜란드의 SALT 재단, 그리고 영국 NGO(Aid to the Church in Need), 프랑스 NGO(L'Oeuvre d'Orient) 등등으로, 이들 단체는 자체 예산과 펀드레이징으로 한걸음에 달려와 부분적으로 파손된 가옥들을 복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현재 니네베 지역 재건에는 어떠한 정책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유엔발전기금(UNDP)에서 나오는 재정은 인구가 많은 모술 지역이나 무슬림 그룹들에만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다. 한마디로 니네베 지역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잃어버린 교회력- “기쁨의 50일” 온전히 지키자!

크리스천센추리, 부활 후 성령강림주일까지 절기설명과 회복위한 제언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점차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 되는 날인 주일(Lord's day)에 예배를 드리게 된 데는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보다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초대교회로부터 주일은 언제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하나의 ‘작은 부활절(little Easter)’이었다. 그러나 부활주일이 끝나기 무섭게, 주님의 부활은 교회나 교인들의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마치 국경일처럼 그저 1년에 부활주일에만 주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선포한다.

초대교회 당시 부활절은 50일 동안 지속되었다. 유월절에서 오순절 기간의 50일이, 부활에서 성령 강림까지의 50일로 의미 전환된 것이다. 부활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의 기쁨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기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쁨의 50일”이라고도 부른다. 이 “기쁨의 50일”은 부활주일과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을 연결하는 교회의 첫 번째 절기다. 초대교회도 부활주일부터 성령강림주일 때까지 50일 동안을 완전한 기쁨과 승리의 기쁨으로 지속했다.

이 절기는 대림절이나 사순절보다 더 오래된 교회의 절기로 주후 3세기까지 교회가 지켰던 유일한 연주기(Annual Cycle)의 절기였다. 흔히 오순절과 혼란스럽게 사용되기도 한 이 절기는 부활 후 50번째의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50일 동안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흔히 ‘파스카(Pascha)절기’라고 불리어져 왔다. 이 기간은 흔히 부활절기(Eastertide)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고 슬픔과 회개의 표현으로 무릎을 꿇는 것을 금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최고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Forty days of Lent? What about the 50 days of Easter?).

이러한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예배의 여러 정황서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세례를 거행하는 초대교회의 세례반(Baptismal Font)을 8각형으로 만든다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지하공동묘지인 카타콤을 사용했던 사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초대교회가 지하묘지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린 데는 그 이상의 이유가 있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다력 · 기념배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gospelmail@hotmail.com



시론
은희곤 목사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독/자/간/중
박병덕 장로

14면

고든 콘웰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 모집



Doctor of Ministry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nistry

Korean Pastoral Theology in Practice

교수 소개



문석호 교수

(Dr. Suk Ho Moon, M.Div., D.Min., Th.D)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
*Understanding Philosophy and Christian Apologetics,
*Spiritual Leadership: Searching for Vision,
Transformation, and Harmony.



류용렬 교수

(Dr. David Ryoo, M.Div., Ph.D)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전 총신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

강 의 2018년 7월 23일 – 8월 3일
접수마감 2018년 5월 9일

목회자의 삶 속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며 성경적인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을 목회철학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어떻게요? 시대의 유행에 따라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교회의 예배와 섬김의 소명을 약화시키지 않는 온전한 목회를 지향한다면 어떻게요?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성경에 근거한 신학과 목회로 행복한 목회자로 준비되어 섬기는 각 교회마다 거룩한 영적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1.800.816.1837 | dminoffice@gcts.edu
www.gordonconwell.edu/dmin

Doctor of Ministry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1면에서 계속〉
한편 니네바로의 귀향은 정말 기
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과 다시 마
주하게 하는 정서적, 심리적, 영적 고
충이 있다.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라
는 절대절명 상태에서 2014년 탈출
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고, 다시 고향
집을 찾았지만 폐허에 가까운 참
담한 상황에서 도전을 받고 있기 때
문이다. 유럽으로 떠난 친구나 친척
들의 용기(?)에 감탄하면서, 여기서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떠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교회들은 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과 상담 사역을 제공

하고 있다. 니네베에는 생소한 복음
주의 진영의 교회들이 철저한 준비
와 프로그램으로 돌아온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고, 사마리아인
의지갑 역시 파손된 주거지가 복구
될 때까지 기도 사역과 쉼터 제공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사역의 원리는 바로 함께 하는 것
이다. 절대로 혼자서 감당해야할 버
거운 짐이 아니라, 같이 감당해나가
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상처들
이 치유되며 다시 나아갈 수 있다고,
오랜 생활동안 난민 캠프에서 겪어
야했던 상실감들을 닦아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위험도 있다. 이라

크 정부가 니네베 지역 통제를 이란
시아파 단체(PMUs)에게 넘겼기 때
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이들이 자신
들을 대할 것인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는 두려움이다. 만약 이란이 해당
지역 통제와 시리아와의 전투를 벌
미로, 지중해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
보인 니네베를 통제한다면 크리스천
들은 또 다시 IS에게 받았던 동일한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달라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재

앙을 거두셨다.
현재 니네바 지역의 모든 교회 리
더들과 크리스천들은 확실한 미래도
없고, 재건 비용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리고 또 언제든 무슬림 세력에 의
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
님만이 자신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
라고 믿고 기도한다. 하루하루가 기
도이며 이로 인해 희망이 계속 늘어
나고 있다(니네바 지역 재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the Nineveh
Reconstruction Committee website
at nrciraq.org에 가면 쉽게 볼 수 있
다).

채플린 임상목회 (15)

미국 종합 병원 응급실(ER)

미국의 종합 병원들은 대부
분 각종 응급 환자들을 24시
간 치료할 수 있는 자체 응급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소규모의 지역별 응급처치 시
설을 통해 1차 응급조치 후
가까운 종합 병원 응급센터로
이송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
니다. 혹은 환자 스스로 손각
을 다투는 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 가정이나 주치의와 상의
후 인근의 소위 Urgent Care
시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입원 환자 침상 수가 1,000개를 넘는 대형
병원들도 있지만, 보통은 200-300개 규모의 종합병원을 30
분에서 1시간 운전 거리마다 도시 인구에 비례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립 및 카운티 등이 운영비 적자폭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병원이 있고, 카톨릭 혹은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
한 병원 네트워크가 있는가하면 독자적으로 모든 재정과 운
영을 감당하는 사립 종합병원과 지역 내에 있는 의과대학에
서 부설 병원으로 운영하는 대학 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응급 환자의 치료 가능 범위가 확대
되며 긴급한 모든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중증 응
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트라우마 센터의 레
벨이 결정되는데, 보통 레벨 1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응급조
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보통은 대도시엔 2개 정도, 중소도시
엔 1군데 병원 정도만이 이런 시설과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보통은 Trauma Level II 정도의 종합병원에 가도
웬만한 응급조치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집이나 사고현장에
서 AMR 혹은 Paramedics 라는 앰بول런스 서비스를 부르거
나 911 전화를 해서 Fire Department 응급차를 부르게 되
면 환자의 병력이나 응급상황에 따라 레벨 1 또는 2의 응급
센터로 환자를 이송하게 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응급센터에 도착해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정밀검사
등을 통해 병세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모색할 때 응급
실 전담 닥터가 환자 상태에 따라 잠시 후 퇴원조치를 하든
지 아니면 중환자실(ICU)로 곧바로 옮기거나 일반 병실로
입원조치를 시키게 됩니다. 이때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충
격을 받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힘들어 하는 시간을 지나
게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 병원에는 정규직 폴타임 원목(채
플린) 외에도 주말이나 야간 임원자들을 위해 소위 On Call
Chaplain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간호사나 의사에게 기독
교 채플린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하면, 보통 20분에서 30
분 내에 채플린의 방문을 받고 환자와 가족을 위해 기도와
영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어로만 소통을 하
고 싶으시면 원목 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니고 있
는 특별한 전화기를 통해 한국어 동시 통역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합병원에는 채플이라는 예배실이 마련되어 있습
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환자를 위해 가족들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환자가
병원에서 운명했을 경우, 원근 각지에서 와있는 친지와 친
구들이 모여 간단한 추모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출석하
는 교회가 없고 사정상 바로 시신을 화장기로 결정했을 때
임종 후 가장 단 기간 내에 채플린의 인도로 가족들이 채플
에 모여 마지막 환송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
다. 어떤 사례나 아무 추가비용 없이 모든 서비스가 제공됨
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tdspark@gmail.com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기쁨의 50일” 온전히 지키자!

〈1면에서 계속〉
지하에 널려있는 시신들과 함께,
그리고 주검들 앞에서 “주님께서 부
활하셨다!”며 큰소리로 외치고 있는
초대교인들을 상상해보라! 초대교인
들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보다 극
명하게 보여주고 선포하기위해서 의
도적으로 지하묘지인 카타콤을 예배
장소로 선택한 것이었다. 이렇듯, 예
수님의 부활사건은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었으며, 특별히 주일의 예배는
이러한 기독교의 중심신앙인 부활신
앙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역할을 감
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으로서의 주일의 기능은
교회가 일 년에 한번 부활절을 지키
게 되면서 도리어 그 기능을 상실하
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던 것이 도리
어 일 년에 한번, 부활주일에만 주님
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선포하고 더
이상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어색한 이상한 예배의 상황이 되버
린 것이다. 초대교회는 사순절 기간
중에도 주일만큼은 부활의 의미를
유지하기위해 40일의 기간 안에 주
일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만큼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선
포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현장에서 매 주일
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 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예수
님의 수난과 관련된 찬송들이 사순
절 기간 동안 줄곧 불려어지는 것과
는 대조적으로 부활절 찬양은 부활
절 주일 하루만 불려어진다. 강조돼

야 할 주님의 부활사건이 도리어 수
난과 죽음에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 가
벼이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하
지만, 이제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
한 신앙의 내용인 부활의 신앙에 대
해서 적어도 초대교회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필
요가 있다.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
을 감사하고 선포한다면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초
대교회는 부활주일부터 성령강림주
일까지의 50일 동안 하나의 잔치
같이, 혹은 하나의 큰 주일처럼 기쁨
과 즐거움으로 보내곤 했다.
이러한 기쁨의 50일인 부활 절기
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
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요
즈음 몇몇 예배학자들을 통해서 초
대교회로부터 지켜왔던 이 부활절기
인 기쁨의 50일간을 새롭게 조병해

보자는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서구의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귀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력을
단순화했던 청교도들의 영향으로 이
절기를 모르고 지내왔던 것이 사실
이다. 40일 동안 주님의 수난과 죽음
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면서도, 주님
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 단 하루
만 기억하고 축하한다면, 상대적으로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념해왔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선포가 교회에서 너무 약화
됐던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
다.
올해부터라도 우리의 예배 속에서
기쁨의 부활절 찬양이 좀 더 많이 울
려 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활절 하루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
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절 후 성령강
림절까지의 50일 기간 동안 말이다.

〈2면에서 계속〉
그러나 다양한 집단의 반(反)파시
스트 시위대가 나타나 소규모 백인
시위대를 압도했다. 그러자 시위가
시작된 지 30분도 안 돼 경찰이 네오
나치와 백인 민족주의자들을 대피시
켰다. 언론엔 거의 보도가 되지도 않
았다.
비판자들은 알트라이트가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분열됐
던 다양한 증오단체들의 집단적 이
름을 바꾼 데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미국이 살러츠빌에서 본 그
들의 단합된 모습은 이례적일 수밖
에 없다. 증오단체를 감시하는 반명
예헤손연맹(ADL)의 칼라 힐 연구원
은 “백인 우월주의 운동은 그 시초부
터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단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살
러츠빌의 ‘유나이티드 더 라이트’ 집회
는 의아해 보일 수밖에 없다.”
한편 안티파(antifa, 반파시스트)
운동가들은 최근의 알트라이트 운동
이 힘을 잃은 것이 자신들의 공로라
고 주장한다. 운동가이자 학자로 저
서 ‘안티파, 반파시스트 가이드북
(Antifa, The Anti-Fascist
Handbook)’을 펴낸 마크 브레이는 “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년이 지난 시
점에서 판단하건대 백인 우월주의자

들이 나설 입지가 없어져서 낙관한
다”고 말했다.
그는 살러츠빌 집회와 그 이후의
김빠진 시위가 그런 행사는 체포와
반발, 내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머
지않아 ‘안티파’에 관한 언급조차 필
요 없어질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낙
관하고 싶다.”
진보파와 심지어 극좌파의 일부도
안티파의 전술에 비판적이었다. 대표
적인 좌파 저술가 노암 촘스키는 안
티파를 두고 “우파에 선물을 갖다 바
쳤다”며 “특히 그들 때문에 군국주의
우파가 활기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안티파 때문에 극우파가 더욱 대담
해졌으며, 안티파의 행동이 정부 기
관에 좌익 운동가들을 탄압할 구실을
제공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관측통에 따르면, 알
트라이트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행
동과 발언으로 인해 지지자들이 떨
어져 나간다고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다, 살러츠빌 집회에서 최후가스와
최후액 분사기를 사용한 혐의로 가
택연금에 처해진 크리스토퍼 캔트웰
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팟
캐스트 ‘래디컬 어젠다’에 앤드루 아
우언하이머를 초대했다. 네오나치 웹
사이트 데일리 스토머의 기술책임자

인 아우언하이머는 대담이 40분쯤
지났을 때 살러츠빌 집회 후 그 웹사
이트가 폐쇄된 데 대한 복수로 유대
인을 살해하라고 촉구하는 듯한 발
언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캔트웰도 충격 받은
듯했다. 아우언하이머는 유대인 엘리
트층의 음모로 자신이 언론의 자유
를 빼앗겼다고 믿는다며 “누군가 나
서서 그들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
다. 그는 “평화롭게 반대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그들이 빼앗는다면
우린 그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다. 그
들의 자녀와 가족 전부를 죽이는 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다. 알트라
이트 관련자들이 연루된 폭력 사건
이 눈에 띄게 증가세다. 올해 초 ADL
은 1970년 이래 지난해가 극단주의
폭력이 다섯 번째로 많은 해였으며,
전체 살인 사건의 71%가 우익 극단
주의와 관련됐다고 발표했다. 그에
비해 극단 이슬람주의와 관련된 살
인은 26%로 그 절반에도 이르지 않
았다.
그런 폭력 사건으로 알트라이트
지도부조차 당황하는 듯하다. 그들은
준법정신이 투철한 백인 보수주의자
들을 알트라이트 운동에 끌어들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알
트라이트 운동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브래드 그리핀은 최근 아우언하이머
를 비난했다. 그는 아우언하이머 같
은 사람들 때문에 자신을 비롯해 선
의를 가진 알트라이트 지도자들이
위험한 인물로 지목돼 연방 요원들
의 주목을 끌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텍사스 주에서 활동하는 저술가로
안티파 운동가인 킷 오코넬은 ‘궁
지에 묻힌 쥐’ 현상을 우려했다. 알트
라이트 지지자들이 궁지에 몰려 영
구적인 정치 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포기하고 폭력으로 좌절감을
표출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다.
결론으로, 궁지에 몰렸든 그렇지
않든 알트라이트의 백인 지상주의
꿈은 여전히 살아 있다. 살러츠빌 집
회에서 행진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
아이덴티티 에브로파는 지난 3월 10
일 테네시 주 내슈빌에서 행사를 개
최했다. 거기에 모인 군중이 스펜서
가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연설했을 때
참석한 인원의 3배나 됐다. 이 단체
는 대학 캠퍼스를 적극 공략한다. 조
사에 따르면 상아탑 내에서 백인 우
월주의자들의 운동가 모집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부활절에서 오순절로

제가 결혼하고 미국에 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여러 번 보기도 하고 또 그 장례식을 직접 인도하기도 했다. 그런 뒤에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소원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 특별히 제가 어려웠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라고 가장 많이 기도해주셨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이젠 나는 어머니도 없는 고아가 되는구나! 더구나 이제는 나를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젠 이 세상에 나 홀로 남았다는 큰 허

전함이 물려왔다. 장지에서 마지막 하관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를 탔는데 어머니를 땅에 묻고 온 그 자리가 생각이 나서 자주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그렇다. 어머니는 저 묘지에 계시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생각이었다. 차장 밖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저 하늘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큰 위로와 확신에 찬 기쁨이 제 가슴에 꼭 차오르는 것이었다. 어머니

의 육신은 이제 땅에 묻혀 영원히 잃어버렸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마음이 기뻐했다. 든든했다. 그날의 영적인 경험은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기쁨으로 돌아왔다.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위로와 기쁨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마리아를 달음질치게 했던 그 원동력은 전혀 다른 깨달음에서 시작된 기쁨이었다.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은 기쁨이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은 데서 시작된 것이다. 보시라! 부활절 아침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반절만 아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홀로 남겨놓으시고 저 멀리하는 나라에 가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적인 기쁨과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렇다.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달음질하게 했던 것처럼 기쁨과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가 인생의 반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믿도록 체험시켜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부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강림하신 그 이후부터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감리교회를 세운신 웨슬리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고 난 후에도 구원의 확신도 없었다. 열심히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 그냥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올드스게이트 조그만 기도모임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마르틴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가만히 들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 사실, 다 아는 사실인데 어

는 순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마음에 성령의 확신으로 뜨겁게 믿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기뻐지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 조용한 경험을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은혜라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성경지식에서 내적인 기쁨과 확신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부활신앙의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다. “성령님, 제게 더 깊이 역사해 주옵소서. 머리에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가슴까지 뜨거운 확신으로 심어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주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에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나가야 된다. 누구라도 진정으로 사모하고 갈망하시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지 않겠느냐 하신 하나님도 여러분을 제외시키지 않을 것이다. 따뜻한 바람이 불면 얼어붙은 산천에 생명이 약동하는 봄이 오듯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에 불어오면 기도하고 싶어진다. 찬양하고 싶어진다. 전도하고 싶어진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희망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게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의 역사이다. 부활주일의 지내면서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열망으로 그 주님의 만나서서 상으로 믿음박질쳐가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 부활의 주님을 알고만 있던 부활절에서 이제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순절까지 나아가고 영으로 오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한 생명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이지용 목사

(뉴욕 갯세마네교회)



주시고 나와 동행함이 믿어 질 것입니다. 부활에 확신가지고 감사와 찬송하시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일꾼들로 참된 사명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의 비전이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살아있는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사명이 끝날 때 까지는 주님이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20세기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로 평가받는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지난 2월 21일 향년 100세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자택에서 소천했습니다. 1918년 11월 7일 노스캐

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태어나 1940년 플로리다 성경대학 졸업하고 1943년 목사가 된 뒤 70여 년간 복음주의를 이끈 그레이엄 목사는 미국 대통령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물론 세계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우리고국인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그레이엄 목사, 1952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복음집회를 진행했으며, 1973년과 1980년에도 방한해 복음집회를 인도했습니다. 특히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복음집회에는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 한국 기독교계의 역사적 장면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대려가셨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마친 주의 종을 대려가신 줄 저는 믿습니다.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해서 살아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와 동행함이 믿어 질 것입니다. 부활에 확신가지고 감사와 찬송하시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문을 열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했습니다” 하며 외쳐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현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며 우리를 의롭다하시기 위해 부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심령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실이 영적으로, 물질 중심의 삶에서 신앙 중심의 삶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 살아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은 바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18-20절의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소극적이요, 비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증거 하는 순교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담대히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내가 예수에 미친것처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내 가족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되어야 합니다. 재능, 물질, 건강, 시간 등 가지가지 은사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라고 맡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노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받아서 장차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 받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32절에 제자들은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생활중 증인 노릇을 해야 합니다. 연연에 예술을 통해서, 정치가는 나라를 섬기는 위정자로서, 체육인은 운동하면서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불안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됩니다. 질병의 사람이 건강의 사람이 됩니다. 죽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nygo4tgc@yahoo.com

지난 4월 1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었습니다. 새벽에는 룬아일랜드의 같은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연합으로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고, 본 교회에 돌아와서는 온 교우들과 3일만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기뻐하며 감격의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한 주간 밖에 안 지났는데 저 자신도 그 감격이 벌써 많이 식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부활의 증인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3대 성인 중의 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며,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빈 무덤이 이를 증거합니다.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기뻐서 엄청난 인파가 모인 거리를 가두행렬 하는 모습을 지켜본 선교사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뼈가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산산 조각났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때로는 500명의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었던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사랑과 미움, 생명과 사망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이 소중한 이유는 예수의 부활은 곧 나와 우리 모두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25-2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이전에 죄 값으로 인해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가요? 성경 고린도전서 15:51-53절에 의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

각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마호메트도 죽고 말았습시다. 그래서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까닭에 빈 무덤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복 있는 사

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와 5백여 형제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고전15:3-6). 예수님의 죽음은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가사상대에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두고 와서 거짓 증거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두었다면 그들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증인되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증인 즉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와 5백여 형제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고전15:3-6). 예수님의 죽음은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가사상대에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두고 와서 거짓 증거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두었다면 그들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증인되어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증인 즉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부활의 증인되자

(고린도전서 15장 14-17절)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펜스부통령의 투표로 낙태대기업의 자금지원줄 끊는 법안 상원 극적 통과

지난 5일, 미국 상원에서는 Planned Parenthood 같은 낙태 대기업회사들이나 낙태 시술소들이 받아오던 연방기금을 주정부 부가 자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상원 투표에서 찬반이 50 대 50이 되자, 최종적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마지막 한 표를 던짐으로써 마침내 통과가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미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 2월에 230 대 188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통과 되었으니 남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이제까지의 트럼프 대통령 행적을 살펴본다면 거의 기정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통과된다면 이전에 주 정부가 이런 단체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시켰던 오바마 시대의 규정을 일축하게 됩니다.

대치해버렸습니다.

또한, 헌법을 존중하기보다는 “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정당성”이라는 이름아래 헌법에 있는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존중에 앞서 ‘동성애자, 이슬람들의 인권과 이슬람 신앙의 자유’가 “소수자, 약자”라는 변명아래 우선순위로 되어 일반시민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역차별시키는 정책이 지난 8년간 무섭게 뿌리내려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기독교 정책들의 열매들로 인해 현재 우리 자녀들이 성경체성의 깊은 혼돈에 빠지면서 아픈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것을 지켜

지기 6년 전인 2011년에는 그나마 미국의 13개 주정부에서는 낙태시술소에 가는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었는데, 오바마의 새로운 규정은 그나마 낙태 지지 법안에 맞서고 있던 13개 주로 하여금 주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낙태 자금을 무조건 모든 낙태시술소와 낙태를 반대하는 여성클리닉에게까지 제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마이크 펜스부통령 “태아생명 살리기 운동” 전력



공화당원들은 이 법안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전에 만들어졌던 오바마의 규정이 뒤집어져서 기쁘다’고 말하며 주정부의 권리를 존중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주정부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무차별한 낙태를 감행하는 자금 지원을 중단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의원인 Joni Ernst도 이 법안에 대해 덧붙여 말하기를 “오바마의 이전 규정은 워싱턴의 연방 관료들에게만 권력을 주고 주정부들의 권리는 빼앗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침묵시키려는 정책이었는데 그런 부당한 규정을 뒤집는 것이기에 이제 진정한 미국식 정책으로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대대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상원 소수 대표 Chuck Schumer은 이번 법안의 통과를 “여성의 인권에 대한 공화당의 또 하나의 공격이자 선전포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류 시민으로 대우하게 할 것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공화당원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Planned Parenthood를 계속해서 자금으로 지원하는 1.3조 달러 옴니버스 지출 법안이 통과되어서 큰 실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자금을 주정부 차원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내린 국회 공화당원들과 특별히 중요한 투표 한 표 소중한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는 펜스 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국시민들의 인식이 깨어나, 세상에서 가장 큰 “Human Rights(인권)” 운동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로지 엄마의 의지로만 태어날 수도 또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태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임을 알도록 기도해주세요.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찬반 동률이라는 결과가 나온 이유: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Susan Collins와 Lisa Murkowski 같은 의원들이 민주당원들과 합세하여 주정부에게 되돌려주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혹 당의 플랫폼을 따르지 않는 의원들도 있기에, 선거 때마다 후보자의 성향에 대해서도 더더욱 촘촘히 알고 투표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공화당과 민주당에는 각 당의 방침과 그들이 믿고 지지하는 가치관들이 Platform(플랫폼)이라는 이름아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은 아직까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포함한 미 헌법을 존중하는 플랫폼을 지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플랫폼은 지난 8년간 오바마의 정책아래 헌법에 있는 “생명의 존엄성, 결혼의 정의, 신앙의 자유, 개인의 권리” 등을 “동성애, 성전환자들의 인권”으로 대치하고 “건강한 태아의 생명을 부분별하게 죽여도 되는 낙태”로

보야하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Congressional Review Act(지난법안을 다시 점검)”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는 낙태 지지를 전폭적으로 미 전역에 펼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낙태지지” 정책에 많은 기독교 정치인들의 반대로 있었지만, Planned Parenthood 같은 낙태 대기업에는 매년 528달러인 달러의 연방자금이 주어지며 낙태를 반대하는 기독교여성클리닉까지도 낙태홍보를 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이를 전인 2017년 1월 18일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은 더 강력한 “낙태지지 연방자금” 규정을 통과시킴으로 주정부가 연방정부 자금을 낙태 진료소 및 모든 여성클리닉에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이 유효화 됐었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주정부까지 통제하는 오바마의 규정이 만들어

이번에 생명존중을 위해서 중요한 표를 행사했던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펜스는 의회에서 일하는 동안 연방정부에서 Planned Parenthood로 들어가는 자금을 끊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태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라는 법”을 적극적으로 밀었었습니다.

또한, 인디애나 주지사로 일하면서도 그는 여러 낙태약 금지 법안에 서명했으며, 오로지 유전적 이상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는데 이 법안은 당시 연방 법원에 의해 중단됐습니다.

펜스는 지난 1월에 열린 연례 생명의 대행진(March for Life)에 직접 참석한 공직자 중 가장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하여 낙태와 낙태 제공자들에게 대한 납세자 지원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미국에 생명이 승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요즘 성경 중에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갈 때 시냇가에서 매킨리 돌 5개를 골라서 나갔다고 했는데 왜 한 개만 골리앗을 죽이는데 충분할 텐데 4개를 더 가지고 나갔을까요? 실패 할까봐 그랬는가요?

-애나하임 힐스 박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저의 견해 이전에 두 목사님의 해석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의 이지용 목사님이 쓰신 “말씀읽기”라는 책을 읽는데 이 목사님은 중학생 때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결단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오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시내로 내려가서 “매킨리 돌 5개”를 골라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한 개면 되지 왜 5개씩이나 준비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만약에 한 개의 돌로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4개를 더 준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20%의 확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갈 때 실패에 대

돌 5개는 5개 지역 장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모든 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이신 이지용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갑돌, 오늘날의 그레데섬에 살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가나안의 해안지역으로 이주해서 살던 5개의 부족인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의 연맹체를 일컫는 말입니다(수13:3).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왔지만 가드의 대표 장수이므로 그를 쓰러뜨려도 가사와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을 각각 대표하는 장수 4명이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4개를 더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다섯 개 들고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 엘라 골짜기를 되돌아보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전쟁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강의 부대, 최강의 전사를 필드로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군도 최강의 전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골리앗, 이스비브논, 삽, 라흐미, 키 큰 자 이렇게 다섯 명의 전사들이 분명히 골짜기에 나왔을 것이다(삼하 21:15-22). 그 중에서도 골리앗이 최고의 파이터였기에 1번 파이터로 지목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다윗은 전쟁터에서 거인 5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물맷돌이 필요했습니다. 물맷돌 하나는 모두 거인 하나씩을 위한 몫이었습니다. 다윗은 100% 확신을 가지고 물맷돌 하나에 거인 하나씩 쓰러뜨리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발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최고의 전사 골리앗이 쓰러지자 네 명의 거인들이 도망치고 블레셋군대도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그날 전투에는 승리했지만 블레셋에는 아직도 무너뜨려야 하는 네 명의 거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설교자는 성경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영 어 :	목 사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어
복음
을
전
파
하
고
있
습
니
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중고등부사역자(youth pastor) 청빙

메릴랜드 솔즈베리(Salisbury,MD)에 위치한 한인장로교회에서는
폴타임, 파트타임 중고등부 사역자(youth pastor)를 모집합니다.

- 자격:신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사역 중 영주권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이력서(사진 첨부),자기소개서
- 제출서류는 yellowtree36@gmail.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문의 전화:410-713-2896(성낙인 장로)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Salisbury,MD) is seeking a youth
pastor(full-time & part-time) to lead our youth group.

- Qualification:Graduated an accredited seminary
- salary&Benefits:Competitive salary based
on qualification and experience
- please submit a personal statement and a resume
that includes a photo of yourself via
email only(yellowtree36@gmail.com)
- here is no set deadline,but we will taking
applications until we find someone.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Elder nakin sung at 410-713-2896.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야나디(YANADI)



르와 치토르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야나디어는 테루구어에서 파생된 언어다.

수많은 시간 동안 야나디족은 벨로르 지역을 벗어나 스리 하리코타 섬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다. 1835년 영국정부가 스리 하리코타 섬을 점령하면서, 정부는 그들에게

도 교육과 산업 등 좀 더 나은 생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나디족에게 돌아가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야나디족은 검은 피부와 작은 키를 가진 종족이며, 카스트신분제도를 따르는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야나디족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들은 소수의 최상위층으로 구성된 만큼 야나디 그룹과 찰라 야나디 등 2개의 그룹으로 나뉘며, 두 그룹간의 결합과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삶의 모습

그들은 주로 시골농부로 일하며, 일부는 낙농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그들의 대표적인 삼림생산물로는 허브와 나무 그리고 빗자루를 만드는데 이용되는 풀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보통 야나디족의 부수입 원으로써 사용된다. 도시에 있는 찰라 야나디족은 화장실을 사용하며, 도시를 깨끗이 정리하는 등 비교적 도시적인 생활을 한다. 그들은 무역을 위해 개구리나 뱀을 사냥하기도 하며, 꿀 등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한다.

일부 야나디족은 일자리와 삼림 생산물을 찾아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며 생활하는 유목민의 생활을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야나디 지역의 숲들은 많이 고갈됐으며, 비옥한 토지들은 모두 부자들에게 의해 매각된 상태다. 그래서 많은 야나디족들은 그들 농장에 고용돼 일을 하고 있다.

야나디족의 종락은 원뿔 모양의

낮은 오두막집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대나무와 나뭇잎, 풀, 수수 줄기로 집을 짓고, 부드러운 흙으로 벽을 쌓는다. 또한 정부도 이를 위해, 여러 지역에 시멘트를 공급하기도 한다. 야나디족이 의식주의 모든 것을 바깥에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오두막은 단지 비와 따가운 햇볕을 피하기 위한 보호지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됐다. 각 촌락에는 강력한 힘을 소유한 우두머리가 존재하는데, 모든 이들은 그의 말과 행동에 복종해야만 한다.

야나디족은 야채수프와 함께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며, 다양한 야채와 야생푸성귀 등을 섭취한다. 그들은 음식은 대체로 매운 편이다. 다른 인도족과 마찬가지로 고기 섭취는 매우 제한적이며, 숲 근처에 사는 야생돼지나 토끼, 도마뱀, 다람쥐 등을 먹는다.

야나디족의 결혼풍습은 비교적 자유스럽다. 예를 들어, 이혼은 매

신앙

야나디족의 90%가 힌두교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 신의 초상화를 모셔두고 있으며, 각 촌락에는 작은 성당들이 지어져있다. 또한 자신들이 좋아하는 신을 위해서 매년 종교의식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사나 의식을 신들이 좋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운명과 행운을 중요시하는 야나디족에게는, 마법이나 마력, 행운아(lucky people) 등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야나디족을 위한 2개의 선교단체가 존재하지만, 전도활동에 필요한 기독교정보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좋은 교육 및 의료시설, 그리고 주택 등의 보급이 시급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기독교인 49% “죄 극복 위해 예수 의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갈2:16).

성경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미국 기독교언론 크리스체너티투데이가 지난달 28일 분석해 발표한 미국인들의 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수께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미국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가톨릭 신자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미국인 1000명 중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비율은 67%였다. 8%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답했으며 10%는 “죄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답한 이들에게 “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기독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의 답변이 나뉘었다. “예수께 의지한다”고 답한 기독교 신자는 49%인 반면 가톨릭 신자 비율은 19%에 그쳤다. 비신자를 포함한 미국인 전체의 해당 답변 비율은 28%였다. 또한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수에 의지하는 비율은 72%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지 않은 미국인들의 비율(19%)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생활 중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한 가톨릭 신자의 비율은 48%로 같은 답변을 한 기독교 신자의 비율(31%)에 비해 17% 포인트 높았다.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이어도 상관없다”고 답한 비율은 기독교 신자와 가톨릭 신자가 각각 3%와 4%로 낮았다. 종교가 없는 미국인들 중에서는 10%가 “죄인이어도 괜찮다”고 답했다.

중국, 온라인서도 성경 판매 금지

중국 정부가 온라인에서 성경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최근 20년 만에 발표된 ‘백서(White Paper)’에서 종교의 ‘중국어화’ 추진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기독교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일 홍콩 성도일보와 미국 라디오방송 자유아시아(RF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징둥(京東)과 타오바오(淘寶), 웨이넨(微店) 등 중국 내 대형 온라인몰과 서점에서 성경 판매가 중지됐다.

징둥에서 성경을 검색하면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안내문구가 나온다. 타오바오와 웨이넨, 아마존은 물론 서적판매를 주로 하는 당당당(當當網)에서도 ‘성경 백과사전’이나 ‘만화 성경 이야기’ 등 관련 서적만 나올 뿐 성경은 찾을 수 없다. 중국 당국은 온라인 업체를 상대로 ‘웨탄’(約談·사전 약속을 잡아 진행하는 조사와 교육)을 갖고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 판매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성경은 정식 출판물이 아니다. 관제 교회 중국기독교협회와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경을 발간할 뿐 시판은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반인은 성경을 온라인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 내 기독교 확산은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3월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과 그 실천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 8000자에 이르는 백서는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중국 국민의 종교 신앙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언뜻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의 조직과 개인이 종교 활동을 벌이려 중국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고 할 경우 결단코 반대한다는 경고가 명시됐다. 종교를 철저히



중국화해 적극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백서는 “독립자주적인 교회(관제 교회)는 중국 신앙인이 자발적으로 만든 역사적인 선택”이라면서 “중국 종교단체와 종교 활동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국 헌법이 확정한 원칙”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의 성경 판매금지 조치에 기독교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2012년 중국에서 호주로 이주한 위렌 왕씨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시민권 주석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종교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성경을 다 치워버린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독교인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전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2010년 기준 중국의 기독교인이 6700만명에 이른다 고 추산했다. 규모로만 따지면 아시아에서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월 초 중국을 비롯해 북한, 미얀마, 에리트레아, 이란,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슬람 국가 터키서 초교파 기독교 교리서 출간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 초교파 기독교 교리서(사진)가 출간됐다. 미국 기독교언론인 크리스체너티투데이’는 4일 “터키 동방정교회와 아르메니아정교회, 시리아정교회, 로마가톨릭교회, 개신교회 등 범기독교 종파가 동의한 교리서가 나왔다”며 “역사적 대분열로 유명한 터키 교회들이 하나가 됐다”고 보도했다.

터키교회 공동위원회 명의로 출판된 교리서의 제목은 ‘기독교, 본질적 가르침들(Christianity: fundamental teachings)’이다. 총 12장으로 구성됐으며 하나님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교리, 성경의 영감설, 성령의 활동, 교회의 역할 등 기본 교리를 담았다. 95쪽 분량의 영문 소책자로 제작됐다. 공동위원회는 5개 종파 대표를 비롯해 11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정·비평·보완·작업을 거쳤다.

교리서가 출간된 건 2002년 수도 앙카라의 공립학교 교과서에 기독교를 설명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교회가 지적하면서다. 당시 터키 정부는 비판을 받아들이며 교회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했다. 이후 교과서는 정확한 기독교 정보가 담긴 내용으로 교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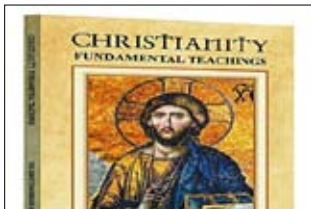
아르메니아정교회 사하크 마살리안 주교는 “공동위원회의 프로젝트는 터키 교회들을 더욱 가깝게 했다. 교리서 출간은 세계교회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출판 작업에는 교파 신학자뿐 아니라 목회자, 교리문답 교사 등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리서 발간으로 터키 교회들은 오랜만에 연합을 이뤘다. 이스탄불은 1054년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이었다. 당시 교황 레오 9세의 특사 3명이 성소피아 성당을 찾아와 동방교회를 파문하면서 동서교회의 대분열(Great Schism)은 시작됐다. 이번 분열의 역사를 가진 터키 교회가 초교파적 교리서를 펴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터키는 신약성경의 주무대였고 종세까지 기독교 중심지였으나 오스만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화됐다. 현재 8000만 터키 인구 중 기독교인은 10만명 정도다.

형사출신 목회자의 美 교내 총격사건 해법은?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교내 총격사건에 대한 형사출신 목회자의 분석과 성경적 해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의 학교폭력 사태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도 참고할 만하다. 형사 시절 미제 살인사건을 전담했던 제임스 윌리



스(57·사건)목사는 최근 미국 인터넷 언론 매체인 타운홀닷컴에 기고문을 냈다. 제목은 ‘교내 총격사건 뒤에 숨겨진 사회적 변화들’. 그는 형사 출신답게 20년 넘는 기간 동안 교내 총격사건 및 사회 문화적 추세(trend)와 양식(patterns) 등을 연구하면서 4가지 변화상을 도출했다.

첫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 증가’다. 윌리스 목사는 “수많은 10대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이버 폭력에 노출돼 있다”면서 “총격사건 범인들은 대부분 범행 전에 사이버상에서 언어적 괴롭힘이나 왕따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거에는 학교 운동장을 나서는 순간 교내 괴롭힘이 멈췄고, 가정에서 위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괴롭힘을 피할 수 없는 시대”라고 안타까워했다.

윌리스 목사는 또 ‘처방약 의존성 증가’를 꼽았다. 오늘날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약을 복용시키는 일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총격사건 범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약을 복용 중이거나 중단한 상황이었다”며 “약물사용이 총격사건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면서 질병이나 정서적 문제를 치료하는 대신 처방전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 다시 말해 부모의 고유한 역할이 침식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모 중 한쪽이 없는 ‘한부모 가정의 증가’도 중요한 변화로 꼽았다. 윌리스 목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가운데 한부모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해 왔는데, 이는 학교 총격사고가 증가하는 기간과 맞물린다”면서 “총격사건 범인들의 경우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줄 ‘롤 모델’로서의 아버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꼽은 변화는 ‘전통적 기독교 가치의 감소’였다. 미국 전역과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기독교가 감소하면서 무신론의 영향이 확대돼가고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윌리스 목사는 “기독교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1년에 1%씩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윤리적 기초가 변하고 있다”며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도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교내 총격사건 뒤에 숨겨진 변화상에서 드러나는 부작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해법이 성경에 있다고 강조했다. 언어 사용이나 자녀 훈계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윌리스 목사는 “모든 문화적 변화는 밝은 미래를 약속해주거나 위협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인간은 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며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

유튜브 인기 난사... “검열 탓 조회수 줄었다”

미국에서 구독자 5000명 이상을 거느린 유명 ‘유튜버’ 유튜브에 자신이 만든 영상을 올려 수익을 얻는 이)가 총기 테러를 벌였다. 자신의 영상이 검열돼 시청자가 줄어든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3일 오후 1시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샌브루노 유튜브 본사에서 3명을 권총으로 쏘고 자살한 이란계 여성의 신원이 같은 주 샌디에이고 출신 나집 나자피 야그답(39)이라고 밝혔다. 총격을 받은 남성 1명과 여성 2명은 인근 병원에서 후송됐고 1명은 중대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특정 인물을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현지 언론은 유튜브를 향한 불만을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 용의자는 ‘나집 사브즈’라는 예명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에 채식주의자를 위한 요리를 비롯해 동물보호, 보디빌딩, 뮤직 비디오부터 성관계 요령 등 온갖 주제를 담은 영상을 영어, 터키어, 이란어로 올렸다. 동물과 함께 있거나 정글에 있는 것처럼 합성한 자신의 사진도 여러 장 게시했다. 과거 동물보호시위에 나선 적이 있는 용의자는 자신을 ‘채식주의자 보디빌더’라고 소개했다.

유튜브 측은 사건 전에 용의자가 올린 영상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영상을 다수 삭제했다. 이에 용의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유튜브가 영상을 검열해

내 창작의욕을 꺾어내리고 시청자 수를 줄였다”면서 “내 유튜브 채널이 커지지 못한 건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영상 조회수 대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 뒤 용의자의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은 삭제된 상태다. 용의자의 아버지 이스마일은 “딸이 생전 유튜브를 즐겼었다”고 CBS방송에 말했다.

이번 사건은 총기난사 사건으로서는 드물게 여성이 주동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미 연방수사국(FBI)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일어난 총기사건 160건 용의자 중 여성 용의자가 연관된 건 단 6건에 불과했다. 희생자 14명이 발생했던 2015년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사건은 경우 부부인 남녀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NYT, 유관순 열사 집중 조명

세상을 바꾸는 데 큰일을 했지만 그동안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을 소개해온 뉴욕타임스(NYT)가 29일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유관순(1902-1920) 열사를 집중 조명했다(사진).

NYT는 지난 8월부터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아 ‘간과된(Overlooked)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인류사에 공헌한 여성들을 소개해 왔다. 과거 남성 위주로 부고 기사를 쓴 데 대한 반성의 의미로 이런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일종의 ‘뒤늦은 부고 기사’인 것이다.

NYT는 유 열사를 ‘일제에 항거한 활동가’라면서 “특히 1919년 학생 신분으로 평화 시위를 이끌며 한국 독립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유 열사의 어린 시절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 이화학당에 다닐 때부터 항일 시위에 참가하고 1919년 3월 1일 고향 충남 천안의 아우내장터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 일대기를 차례로 소개했다.

또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 전에 “내 손가락과 코와 귀가 잘려나가고 사지가 부서지는 고통은 내 조국을 잃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을 조국에 더 바치지 못하는 게 가장 슬프다”는 글을 남긴 사실도 거론했다.

NYT는 “비록 3·1운동이 곧바로 독립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전개되는 항일 저항운동의 촉매가 됐다”면서 유 열사의 독립운동과 순국이 헛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미국인 4명중 3명, 주류언론 보도 불신

미국 국민 4명 중 3명꼴로 주류언론의 보도 내용을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몬마우스대학의 전문 여론조사기관



이 지난 2-5일 성인 남녀 803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p)에 따르면, 77%의 응답자가 전통적인 TV와 신문에서 ‘자주’ 또는 ‘가끔’ 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 주류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한다고 답했던 비율 63%보다 14%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언론이 가짜뉴스를 ‘자주’ 보도한다는 응답은 31%, ‘가끔’ 보도한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더 많이 떨어졌다. 무려 86%의 응답자가 인터넷 언론이 가짜뉴스를 자주 또는 가끔 보도한다고 답해 1년 전보다 6%포인트 더 늘었다.

패트릭 머레이 몬마우스대 여론조사 담당 국장은 “독립적인 제4계급(언론)에 대한 신뢰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우리의 경우 중환자실로 향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48. 양주은(1879-1981)

양주은은 1879년 5월 25일 경기도 송도 동부 백운동에서 삼포영농을 하던 양법순의 장자로 태어났다. 그는 1902년 팔도강산을 유람하며 방방곡곡을 다닌 후 개성인삼의 해외시장 개척과 서양 문물의 시찰 그리고 쓰러져가는 나라사랑의 꿈을 품고 24세였던 1903년 11월 18일에 홍콩 마루에 몸을 의지하고 하와이로 갔다. 오하우 섬 사탕수수 농장에서 3년간의 고용기간이 끝난 후 1906년 4월 5일, 상항 대지진이 나기 3일전에 그는 상항으로 이주한다.

삭도교회 전도사

양주은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입교한 때는 1904년 하와이에서다. 상항으로 이주한 1906년에 상항교회 창립 멤버가 되었다. 1907년 삭도(새크라멘토)에 이주한 후 다시 상항으로 돌아온다. 진명고녀 1회 졸업생인 이제현과 상항교회에서 1913년 8월 24일에 결혼한 양주은이 네 달 후에 있었던 미국 남감리교 계삭회에서 상교회 유사로 선임되었다. 2년 후 1915년 무사탕 농사를 위하여 삭도로 이주하던 그 해 6월 그는 삭도교회 전도사로 임명되었는데 순회 목사는 황사용이었다. 당시 삭도교회는 28명이 등록했고, 평균 15명이 출석했다. 그는 1921년까지 전도사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상항교회 전도사

양주은은 서양찬관 ‘엥글 샘’을 하기 위해 1922년 다시 상항으로 이주한다. 1928년 그는 평신도인 도원으로 선임되어 이듬해까지 본직을 감당했다. 1930년 5월에는 양주은이 상항교회 계삭회의 전거로 전도사의 직무를 계속하고 품행을

통과한 후 1년급 직첩을 주기로 결의했다. 당시 상항교회 담임교역자는 황사선 목사였고, 출석 교인은 84명이었다. 그는 1942년까지 계속 전도사로 섬긴 것 같다. 당시 담임목사는 황사선이었고, 등록 교인 70

감옥을 심방하였다. 4, 5천명 죄수를 수용하는 ‘만국 여관’이라할 만큼 경관이 매우 좋았으나 인생의 한 지옥이라는 감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한 감상을 가질 수 없었다. 동 감옥의 전형이 장인환 의사가 옥고를 치를 때보다 많이 개량되어 음식이 매우 편리하고 교육 기관이 상당하여 무엇이든지 배울 마음만 있으면 다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해 9월에도 양주은은 한교준, 전득부, 염만석 등과 함께 이곳을



양주은 전도사

였는데 경관이 웃으면서 ‘오늘이 가주의 큰 명절(가주가 연방정부에 가입한 날)입니다. 오늘과 1월 초하루 날과 이 두 날에는 감옥 죄수들이 ‘헬오프 군 타임’을 하는 것으로 누구나 심방을 허락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니까 군말해야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양주은은 상항 시내에 있는 부인들과 신한민보 기자와 함께 1933년 5월 사망한 동포들이 안장되어 있는 사이프러스 공원묘지를 찾았다. 이곳에는 고 장인환 의사와 고 이대위 목사 등 10여명 동포가 안장되어 있었다. 교인명부에는 생존교인뿐만 아니라 사망 교인도 있는 법이니 심방은 당연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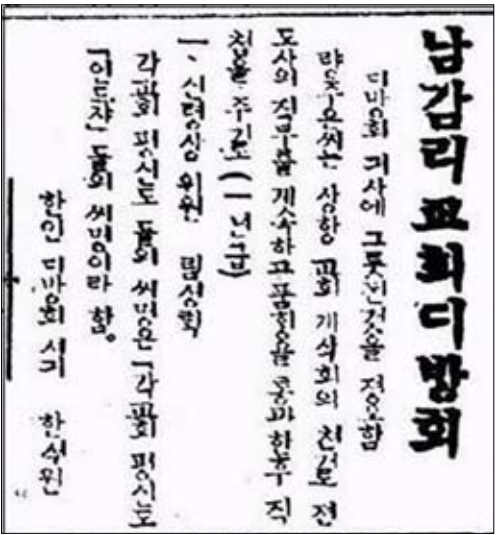
상항교회 담임전도사

임두화 목사가 소천한 후 후임 목회자가 쉽게 결정되지 않자 양주은이 담임 전도사로 1948년 9월에 부임한다. 당시 74명이 등록했는데 평균 출석은 54명이었으며, 주일학교 학생은 7명, 엽위스 회원은 30명이

삭도교회, 상항교회 전도사, 담임전도사로 사역 수입의 대부분을 독립운동과 동포 후원에 사용 1942년엔 한인경비대에 입대해 독립운동 전개



신한민보 1915년 7월 8일



신한민보 1930년 5월 8일



양주은 1942년 한인경비대원

심방하였는데 헛길이 되었다. 감옥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경찰이 말하기를 ‘당신네들이 1년 열두 달 하고 많은 날에 굳이 심방 못하는 날을 골라서 오신 것이 불행입니다. 섭섭은 하지만은 돌아가셨다가 후일 다시 오시오!’ 하여 ‘그래,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심방을 허락지 않느냐?’고 반문하

었다. 그는 김하태 목사가 부임하던 1949년 6월까지 약 9개월간 담임 전도사직을 성실하게 감당했다. 당시 등록 교인은 67명에 평균 출석은 47명이었고, 주일학교 학생은 7명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오는 초청 설교자들로 강단을 채웠고 임정구 목사의 아들인 스트리트가 모는 교회 활동에 적극적이어서 큰

힘이 되었다.

애국애족

양주은은 1906년 상항지방회에 입회했고, 1907년 애국애족과 상부상조를 목적인 대동보국회의 창립에 참여했으며 대동보국회 삭도지역 대리회장으로도 활동했다. 1909년 대동보국회와 국민회가 합동하여 대한인국민회를 창립할 때 참가했으며, 1924년 대한인국민회 상항 실업부원, 1932년 지방회 회장, 1936년 지방총회 실업부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1913년 5월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설립한 흥사단의 창단에 단우번호 6번으로 가담했고 평생 도산 안창호를 존경했다.

양주은은 삭도와 상항에서 일하며 얻은 수익금의 대부분을 독립운동과 동포 후원에 사용했다. 그의 독립운동에는 중국과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일독립투쟁 후원, 군자금 후원, 광복군 후원금 등이 있었고 심지어는 중국혁명원금과 중국 항일전쟁 동정금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서간도 기화 구휼금, 재만 동포 동정금, 내지 수재구제금, 성탄내지구휼금, 이충무공 유적 보존금, 목류동포 수재구제금, 쿠바동

유학생들의 재정적 지원에 적극 참여했고, 자기 가정을 유학생들의 제2가정으로 즐겨 내놓기까지 하였다. 이승만이 결혼한 후 호텔에서 지낼 경비가 없을 때 양주은의 집에서 3개월 여 동안 머물렀으며, 김규식도 몇 달 간 그의 집에 머문 후에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러 갈 여비가 없을 때 생명보험회사에서 150달러를 빌려다 주는 등 애국지사에 돕는 일도 남달랐다. 양주은은 1931년 6월 상항에서 우병옥과 임정구 등과 함께 실업연구회 발기에 동참했고, 임시회장에 선임되어

한인들이 많이 하는 세탁업의 경우 구멍가게를 벗어나서 주식회사로 합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1942년 한인경비대에 입대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위와 같은 양주은의 애국 애족은 그가 상항지진으로 고통가운데 있을 때 대한제국으로부터 후원받았던 10원을 보상하려는 고마운 마음이 작용했을 지도 모른다. 상해 임시정부는 1937년 5월에 각료명의로 양주은에게 감사의 서한을 보냈고, 1953년 3월 이승만 대통령은 양주은에게 광복 대업후원 공로 표창장을 수여했고, 1974년 11월에는 대한민국정부가 조국 독립에 공헌한 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고, 1997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것은 그의 애국 애족의 정신에 합당했다.

그가 1911년 9월 20일자 신한민보에 “해외한인은 신문을 의무로 구매했다”는 기고문을 발표하였는데 1909년 창간호부터 1945년까지 수집한 신한민보를 1961년에 한국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그의 신실함을 보게 된다.

소천

부인 이제현이 상항교회와 대한부인여자에국단과 국어학교 등에서 헌신하다가 1958년에 먼저 가고 혼자 살면서 월 235불 받는 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교회 헌금, 흥사단 회비, 국민회 회비 등을 내면서 부족하면 부족한 데로 살았다.

호흡기 질환과 기억력이 감퇴되어 양노병원에 입원한 양주은, 얼굴도 머리도 하얀 백운(白雲) 양주은은 1981년 8월 30일에 향년 103세로 세상을 떠났다. 75년 다닌 상항교회가 그를 사이프러스 론 공원묘지에 누운 아내 옆에 안장했고, 그의 복음 선교와 애국 애족은 우리의 귀감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damien,sohn@gmail.com

리더십 코멘터리 (62)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행복 바이러스

흔히 외로움은 내성적이거나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들에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외로움이란 사회현상이며 질병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외롭다고 느끼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즉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외로움은 전염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외로우면 친구와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외로움이 전염된다.

행복은 전염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 왜냐하면 전염이라는 단어는 '병을 남에게 옮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연구해보면 깊은 의미도 담고 있다. '다른 사람의 습관, 분위기, 기분 따위에 영향을 받아 물이 든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드 대학 연구팀이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이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만족, 불만족, 중립으로 구분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추적,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감기처럼 전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복의 감정을 전달 받은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중립 단계의 감정 상태로 돌아왔다. 이때에는 감정에도 면역력이 생겨서 행복한 사람과 접촉을 해도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서도 감정이 감염된다

재미있는 것은 페이스북 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이 전염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북에 긍정적인 글을 게시할 경우, 밝고 환한 긍정적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반면 부정적인 글을 올리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

없이 행복한 마음과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 주변에 실패로 인한 자책감으로 외로움을 느끼던 리더가 어느 날 갑자기 사진 개인전을 열고 음악 작품을 발표하고 시집을 내기도 한다. 때론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기 위해 홀로 또는 가족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교회나 사회생활에 즐겁게 몰입하는 리더는 자기 삶에 주체적인 리더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는 행복감을 갖고 자기에게 필요한 일을 주저 없이 행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결과 자신의 재능과 타인과의 팀워크를 구축하며, 불필요한 힘의 낭비 없이 파워풀하게 일을 완성해 낸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자기 삶에 주체적인 리더의 리더십은 나날이 상승한다. 당신은 수동적인 리더인가? 주체적인 리더인가?

행복바이러스를 만들어 전파하는 해피리더가 되라

바ible에 등장하는 행복 바이러스를 만들어 전파하는 사람들과 부정적인 불행 바이러스를 만



변명해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성숙을 위한 기다림

삼월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 8년 전에 심었던 살구나무가 오랜 시간 외만 무성하더니 작년에 처음 꽃이 피었고 열매를 맺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올해는 아직 나무가지에 새싹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뒤뜰에 나갈 때 마다 언제 파릇파릇 새 잎이 나오려는지 눈길을 준다. 기다림은 지루하기도 하지만 설레임과 기쁨도 있다. 기다림 이후에 찾아오는 반가움이 있기 때문이다. 서정주 시인이 가을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꿉새가 울었나보라고 표현했듯이 아름다운 결과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길된 짧은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연의 성숙에도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데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 주변에서 급한 성품이 잘 바뀌지 않는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조금씩만 변화하고 있는 자녀를 보며 조바심을 하는 분들을 본다. 머리로는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막상 본인이 바라는 것처럼 빠르게 바뀌지 않는 가족 앞에서 우리는 쉽게 좌절한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충분히 깨닫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막상 마음의 결단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마음대로 행동이 따라와 주지 않으니 변화를 원하는 본인도 답답할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며 성숙의 과정을 기다려 줄만한 충분한 인내심이 모자라서 힘들어한다. 그러나 조금씩이나마 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에는 왜 이렇게 서서히 바뀌고 있는지는 체적보다는 적은 변화지만 이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 우리는 격려 받을 때 더 힘을 얻기 때문이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기다리는 일에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먼저 변화의 과정에 대한 바른 이해의 부족이 우리로 하여금 조바심 하게 한다. 즉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성숙의 과정이며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성숙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높은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한다.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서도 어린 자녀를 향한 기대는 그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기대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두 살짜리 아이에게 자기 방을 완벽하게 깨끗이 정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자기가 놀고 난 장난감을 통해 다시 넣어 놓기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준다. 두 살짜리에게 두 살에 맞는 기대를 해야 하듯이 우리 곁의 사람이 지닌 미성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맞는 기대를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자신이 지닌 스스로의 연약함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숙을 기다려야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곁의 사람이 지닌 부족함에 대한 나의 반응이 그 사람의 성숙을 방해하기도 한다. 나도 날마다 씨름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부족을 주님 앞에 늘 가지고 나가 새롭게 되기를 구한다면 우리의 동료된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을 안고 힘들어 하는 모습에 우리는 관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십자가 앞으로 그 약점을 품고 나가 앞뒤릴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들의 늦은 변화에 속상해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 참던 동안이나 함께 했던 제자들의 더딘 성숙을 보면서 끝까지 참으며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에 때로 참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다. 십자가를 가까이 둔 시점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언쟁을 하기도 하고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기도 한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도 않으셨고 묵묵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몸소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결국 제자들은 부활의 날 이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생명을 바쳐 주님을 섬기는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부족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료들의 연약함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인내할 때 그들도 우리와 함께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성숙의 길을 향해 서서히 나아갈 것이다.

lpyou@apu.edu

SNS 통해서도 감정 전염... 나쁜 감정보다 좋은 감정이 더 쉽게 전파 행복 바이러스 만들어 격려, 칭찬, 세워주는 리더가 진정 영향력 있어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외로움은 불신이나 부정적 감정을 통해 전염된다. 예를 들어 내가 외로움을 느끼면 친구에게 인상을 쓰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기 쉽다. 그런 대우를 받은 친구는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대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식으로 나는 친구를 잃고 내 친구도 또 다른 친구를 잃게 된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점점 친구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강하다.

친구가 줄면 점점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친구가 많은 사람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마치 '털실로 뜯은 옷이 끝자락에서부터 풀어지듯 사회관계가 주변부에서부터 붕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거짓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들은 어쩌면 행복에 무더져 있는지도 모른다. 웃으면서 나누는 이웃과의 인사, 환하고 구김 없는 아이들의 웃음,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가족들의 편안함 등 셀 수 없는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쳐 버리기 일췌하다. 당신은 행복한 리더인가?

말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활패턴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이다.

전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의학 분야이다. '감기가 전염된다.' 혹은 '병이 전염된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전염되는 것은 비단 질환뿐만 아니라 하품부터 사람의 감정까지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감정 전염은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감을 느끼고, 반대로 내가 슬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슬픔을 느끼는 것. 이것을 '공감(sympathy)'이라고 말하는데, 공감 역시 사람의 감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다.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해진다

최근 미디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바로 '행복 바이러스'이다.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 바이러스 덕분에 나도 행복해진다는 말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행복도 감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하버

정적인 글보다는 긍정적인 글의 전염력이 더 강하다.

사람들이 페이스북 북을 이용하는 이유는 페친들과 어울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감정을 교류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나쁜 감정보다는 좋은 감정이 더 쉽게 전파된다. 한 사람의 감정이 지역을 넘어 SNS를 통해 넓게 전파되고 있다. 이는 한 사람의 감정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정신 및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자기 삶에 주체적인 리더가 되라

자기 삶에 수동적인 리더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적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원하는 업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한 능력은 쉽게 고갈되고 금방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자신보다 높은 누군가가 대신 판단을 내려 주기를 기대하지만, 자기만 옳다는 고집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자기 삶에 주체적인 리더는 주어진 환경, 조건과 상관

드는 사람들이 주목을 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리더인 모세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12명을 뽑아서 공동체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만들어 전파했다. 그 결과 모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순식간에 비전과 믿음을 상실하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며 불행한 인생을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정복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만들어 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정적인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망할 때 오직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자신의 생애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행복 바이러스의 힘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행복 바이러스를 만들어 전파하는 해피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진정한 리더이다.

sondongwo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전 9:40(화-금)
세례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3.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영여)
수요학교: 오후 6: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3.org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학교: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세무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F, Flushing, NY 11358
chungkil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여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http://www.cpcny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7406-7577, (718)9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tioch.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9: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성경강좌: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세례기도회: 오후 1:30
수요 전 영모임: 오후 8:30

Tel: (918)371-7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50
주일학교: 오후 1:50
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m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미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후 12: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영모임: 오후 5:00
영모임: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t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월-토) 아침 7:40
영,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월-토)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여)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hanminchurch.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 Hwy C-100 Honolulu HI 96817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찬양 기도회: 매월 둘째 주 오후 7:30

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0

Rua Joaquin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보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1-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9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6:00
(1,2부 주일내외 선교)

Tel: (52)333-3507-4111
E-mail: hanjkn@hanjkn.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121:1,2). 지금은 참으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 남녀노소(男女老少) 빈부귀천(貧富貴賤)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인생 그 자체가 고(苦)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창조주이시다. 누구 하나에게 이 땅에

서 추구하는 좋은 것을 다스리지 않는다. 지혜가 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고, 돈이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며, 운동을 잘하면 머리가 약하다. 그래서 지체장애를 지니고 있는 송병희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나 남에게 있는 건강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나 남에게

있는 건강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 좋을 수도 다 나쁠 수도 없게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공평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인 이상 누구에게

나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 도움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계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것이다.

사람이 만물지상 일신지하의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위에는 사람이 없지만 사람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신 질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지상의 위치에 고무된 사람은 그 하나님마저 제하고 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혹독하게 대가를 치루며 지금도 빛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결코 자고(自高)하지 못하도록 교훈하며 경고하는 말이 바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며 네 위에 창조주가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경고인 것이다.

사람의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다. 그 지정의가 존재를 깨닫게 한

다. 아버지가 출타를 해도 자녀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의식하며 산다. 그렇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살지 않는다.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옆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게 된다. 성경은 이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1:19,20)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 이심을 알만한 것 즉 지정의가 사람에게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핑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며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 결과는 곧 망신이며 추락이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자들 중에 낯고 긴다는 인물들이 있다. 한국에만도 두 명의 대통령이 있고 전직 대통령들 중에도 있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며 자신의 지식과 재주와 능력을 뽐내다가 자기 자신조차 스스로 추스르지 못한 채 망신을 당하고 추락하여 초라하고 처참하게 죽어간 자들이 무지기수다. 어느 누가 창조주가 계신 산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아직 살아서 숨을 쉰다면 이제 진정한 도움이 있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자. 아직은 늦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 하시고 영혼도 지켜주시는 분을 향해 간절한 소망과 감사의 눈을 들자. 인생에 필요한 모든 도움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hanmac@cmi153.org

제 67회 국가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한인교계 5월 3일 주님세운교회에서

제67회 국가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연합기도회가 5월 첫째 주 목요일인 오는 5월3일 미전역에서 열린다.

한인 교계는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자마(JAMA, 대표 강순영 목사)와 사이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안병권 목사) 주관으로 OC교협, 남가주한인목사회, OC한인목사회, 남가주여성목사회, OC한인여성목사회, LA성시화운동본부, HYM, 미스바기도운동이 공동 주최로 연합기도회를 진행한다.

주최 측은 지난 2일 오전 11시 JJ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도의 날 기도운동의 중요성과 행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성규牧사는 “국가기도의 날 기도운동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살리자는 운동이다. 이 기도운동에 한인교회가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라의 운전대는 교회가 잡고 있다. 지금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이번 기도회가 북한의 핵 포기와 세계평화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67회 국가를 위한 기도날 연합기도회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있다

강순영 목사는 “올해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며, “올해도 미전역 4만2천여 곳 이상에서 기도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와 가정, 그리고 학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날 함께 한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함심으로 기도하자. 미국이나 세계는 지금 한국 정부를 매우 위협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특별히 이번 기도회에는 다음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 뜨겁게 기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도의 날”은 북미 대륙의 의회가 미합중국을 만들면서 기도의 시간을 지정한 1775년부터 시작, “기도의 날”이라 불리기 시작했으며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 기도의 날이 필요함을 요구, 1952년 의회의 인준에 의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제정돼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매해 5월의 첫째 목요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정했다.

(박준호 기자)

LA와 캘리포니아지역 확대 말씀사경회 열린다.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요10:9)” 주제로

CABC(캘리포니아 바이블컨퍼런스)가 오는 7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21일(토) 오후 3시까지 아주사파시픽대학교(총장 존 웰레스 박사)에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요 10:9)”라는 주제로 말씀사경회를 갖는다.

이번 사경회는 여호수아기-김한요 목사(얼바인메텔교회), 호세아서-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아모스서-민종기 목사(충현선교회), 에베소서-박성근 목사(로스엔젤스한인침례교회), 갈라디아서-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등 5명의 강사가 강하게 된다.

오직 성경만을 강의하며 참석자



들은 모두 소그룹으로 나뉘어 다섯 개의 강해를 다 듣게 된다. 이 바이블컨퍼런스는 2007년 NYBC(뉴욕 바이블컨퍼런스), 뉴욕 업스테이트 지역 5개 교회가 중심이 돼 시작된

이래 한국에서는 2010년 KYBC(한국 영리필바이블컨퍼런스)가 열리는 등 계속 확장돼가다 2년 전 LA에서 시작하게 됐으며, GMIT(Global Media&IT: 켄안&셀리 안, www.cabile.org)가 주관한다.

주최측은 이 집회에 관해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말씀 집회를 통해 오직 한분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예배자, 제자, 중보자로 각 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길 기대한다고”고 밝혔다.

2박3일 동안 진행되는 말씀 집회의 등록비는 240달러이며(4월30일까지 조기등록 220달러), 숙식과 교재, 주차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참가대상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녀동반 시 유치, 유년부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바이블컨퍼런스(Toddler-5th grade, 등록비 120달러)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문의: (310)702-2688, (7)사제공: GMIT)

남가주교회음악협회 2018 장학후원의 밤

22일 오후5시 주님의빛교회...웨인양 협연

남가주한인교회음악회(회장 전현미)가 주최하는 장학후원의 밤이 오는 22일(주) 오후 5시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열린다.

전현미 회장은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으나 음악에 특출하고 하나님에게서 주신 달란트와 비전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격려하고자 장학후원의 밤을 준비했다”며 “이번 후원의 밤은 오는 9월에 열리는 2세대를 대상으로 열리는 ‘학생전망경연대회’ 때 수여하는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웨인양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많은 분들이 참석

해 후원의 밤을 빛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생으로 선발된 웨인양 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이 없고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은 사용 못하고 청각에도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다.

웨인 학생은 5살 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악기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발견해 피아노를 계속 배우고 현재는 앤드류박 교수에게 지도를 받고 있다. 여러 콩쿨대회에서 1등도 하며 연주활동을 하며 활발하게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해 장애의 한계를 뛰어

넘어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번 후원의 밤에 피아노 연주로 표현한 다.

또한 장학생후원의 밤에 동참하기 위해 출연하는 팀들은 LA Young Players, Cellist Lila Yang, Kairos Singers, Randy Kim's Contemporary Choir, Grand Festival Choir.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는 남가주에 속한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1971년에 설립된 종교교 연합기관으로서 이곳 남가주 교회음악인들의 교류와 그로 인한 남가주교회음악의 발전을 위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47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

▲문의: 전현미 회장(310-381-9835), kcmasc.org (7)사제공: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전 고세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총장이 지난달 25일 살롯장로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고세진 전 총장은 고든 콘웰 신학교 한국파트 책임교수로 부임했으며, 아울러 고든 콘웰 제 2대 총장인 Dr. Cooley 기념연구소 소장의 책임을 맡게 됐다. 한편 아세아연합신학대 림택권 전 총장도 11일 살롯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7)사제공: 살롯장로교회)

살롯장로교회를 방문한 고세진 박사(앞줄 왼쪽 두 번째), 로버트 콜리 박사(앞줄 가운데)가 식사후 교수들과 기념촬영했다. 뒷줄 오른쪽 두 번째가 나성균 담임목사, 앞줄 맨 오른쪽이 전기현 장로.

서울신학대 장학금 후원 총장배 토너먼트

서울신대 남가주총동문회 주최, 4월 19일

서울신학대학교(총장 노세영 박사) 남가주총동문회(회장 송중복 목사, 사진 앞줄 중앙)가 주최하는 본교 후원 골프토너먼트가 미주성결교단(KECA, 총회장 이상복 목사) 총회 중에 열린다.

서울신학대학교 출신들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KECA 총회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LA 시온성

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열리며 골프토너먼트는 19일(목) 오전 8시30분 한센탐골프코스(주소 10400 Glenoaks Blvd., Pacoima)에서 열린다.

송중복 동문회장은 “노세영 총장과 대화를 갖고 107년 된 모교 서울신학대학교가 전 세계에 선교의 요람이 되는 복음의 전당으로 발전

되기를 미주의 성결인들과 지인들이 참여해 후원하는 골프 토너먼트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남가주총동문회 총무 김회장 목사(213-268-9367)와 서기 회계 안신기 목사(909-677-0028)에게 연락하면 된다.

참가비는 일인당 100달러이며 1, 2, 3등 상과 장려상, 점심식사가 준비되고 참가비 대부분은 미주에서 서울신대에 유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사용되며 노세영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7)사제공: 서울신대 남가주총동문회)



LA문화선교원 시전 주최 제9회 시로드리는 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젓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

문화선교원 시전 주최 9회 시로 드리는 예배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민미 전도사)은 제 9회 시로 드리는 예배를 7일 오후 4시 아이엠교회(담임 정종원 목사)에서 개최했다.

김문숙 동인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신병목 목사(로스펠리즈교회 담임)이 기도했으며 정종원 목사가 ‘나사렛 선언(요 1:4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종원 목사는 “시전 모임에서 만들어진 시들은 천국의 언어로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시”라며 “우리 나름대로 시를 통해 눈먼 자가 눈뜨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되고, 가난한 심령들이 부요함을 얻게 될 것이다. 시의 잔치를

올려드려 믿음의 복된 잔치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도 시전활동에 대한 영상소개가 있었으며 이은경, 최명희, 에이미리, 정하나 동인과 김영희, 정문기, 윤일봉 시인이 시낭송, 그리고 박미애, 갈렙김, 이희숙 등 시전 9기 회원들이 시낭송과 시전 가입계기 설명이 있었다.

이어 윤일봉 목사의 격려사와 이민미 시인의 시낭송 및 인사시간을 가졌다.

이민미 전도사는 “시전에서 나눠지고 발표되는 시들은 마치 어린아이의 우렁찬 울음”이라며 “젓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성하실 때 호산가를 외치며 노래하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셨을 것이며 아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그처럼 우리 시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정종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고세진 박사, 고든콘웰 한국파트 책임교수 부임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리더십 세미나’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박근재 목사)와 ‘러브뉴저지’가 주관하는 ‘리더십 세미나’가 4월 17일(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온누리교회(담임 마크최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 참가비는 무료이며 중식이 제공된다.

▲문의: 총무 홍인석 목사(201-815-9254), 간사 박지우 목사(201-694-3005)

담임목사 청빙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이며 오하이오에 있는 클리브랜드한인장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대학, 신학대학원(M.Div) 졸업, 이민목회 5년 이상 된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로 45-60세.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본인 및 가족소개서, 목회비전과 소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소속교단 재직증명서, 목사 안수증, 추천서(목회자) 2명, 6개월 이내 설교 DVD 2편(동영상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마감은 4월 30일까지. 서류는 이메일이나 우편(4839 Pearl Rd, Clevand, OH 44109, 이메일 주소 첨부)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younghlee53@gmail.com

아멘넷 15주년 기념집회

인터넷 기독교언론 아멘넷(대표 이종철 안수집사)이 창간 15주년을 맞아 5월 1일(화) 오후 5시30분 에벤에셀선교교회(공동담임 최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린다. 이종철 대표는 이번 집회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쉽지 않은 영적 그리고 물리적 환경 속에 어떻게 이민한인교회들이 극복해야 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의: USAamen.net

미동부 한인목사회 친선 체육대회

미동부 한인목사회 친선 체육대회가 5월 1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 올해 주최자는 필라목사회로 축구, 족구, 배구, 계주달리기, 줄다리기 등의 경기가 예정돼 있다.

▲문의: (718)762-5756

샬롯장로교회 간증집회 및 춘계 부흥회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간증집회와 춘계 부흥회를 갖는다. 4월 27일(금)저녁에는 세계적 오페라 가수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유나리 집사의 간증 집회가, 27일부터 29일(주)까지는 문석호 목사(뉴욕호신장로교회 담임)가 부흥회를 인도한다.

▲문의: (704)877-6642

영업직원 모집

뉴욕 칼리지포인트에 위치한 이베너 회사(E Banner US)가 영업과 트 프리랜서 및 직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00명. 이베너는 뉴욕 지역에 새로 개발된 디지털 사인리지 디스플레이(Digital Signage display, DID)를 이용한 광고를 제작, 보급하는 회사다. 경험자는 영업활동비 및 인센티브 지급한다. nybanner@gmail.com

▲문의: (646)643-3199, (718)631-7969

[정정] 본지 1676호 10면 동부소식란에 게재했던 기사 중 ‘뉴욕원로성직자회’ 정기총회를 ‘뉴욕원로목사회’ 정기총회로 바로 잡습니다.



뉴욕목사회가 주최한 “목회자와 복지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목회자들 은퇴 후 재정관리 안내 뉴욕목사회 “목회자와 복지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주최한 “목회자와 복지세미나”가 지난 29일 오전 10시45분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희선 목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선 리차드김(김신철, blueluv333@gmail.com)은 충신을 졸업하고 미국에 온지 15년 정도 됐으며 이날 목회자들의 은퇴 후 재정관리에 대해 소개했다.

김 강사는 △How Money Works △Money Processing △Money Concept △Solution & Choice 라는 주제로 돈은 수입과 지출, 저축, 은퇴후 재정 등의 단계로 기본적인 저축방해 요소는 인플레이션과 리스크, 텍스 3가지라고 설명했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 복리이자 사용과 텍스 후불(later)과 텍스 어드벤테이지로 세금처리를 설명하고 Fixed(CD, 저축), Variable(Stock,

MF), Indexed credit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김 강사는 합법적 재정도우미는 은행과 투자기관, 보험회사가 있는데 안전도에 따라 이자율과 리스크가 다르다며 은퇴 후 소셜 연금을 받거나 개인적 펜션, 혹은 자녀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 케이스를 예로 들어 재정관리 조언의 실례를 보였다.

세미나를 마치고 회장 문석호 목사는 “은퇴후 플랜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별로 상담이 필요하다”며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 갖고 달려가는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변함없는 지혜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달려가며 작은 재물이더라도 미래를 위해 잘 활용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헌금은 미자립교회 후원한다 뉴욕, 뉴저지 교협 2018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뉴욕교협 부활절연합예배 지역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가진 평가회 및 위로회에서 이만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저지교협 부활절연합예배 평가회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프라미스교회 설립기념 임직감사에배를 마치고 임직자들과 순서 맡은 이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장로 6명, 협동장로 6명, 안수집사 23명, 권사 76명 프라미스교회 설립43주년 기념 임직감사에배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가 지난 4월 1일 부활주일 오후 4시 설립 43주년을 기념하는 임직감사에배를 드렸다.

지난 1월 7일 프라미스교회 3대 담임으로 허연행 목사가 취임한 후,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일할 새 시대의 일꾼들로 장로장립 6명, 협동장로 취임 6명, 집사안수 23명, 권사임직 76명 등 총 111명이 이날 임직했다.

지난 40년간 프라미스교회에서 사역을 이끈 김남수 원로목사의 훈련을 통해 양육되고 준비된 임직자들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진 허연행 목사와 함께 프라미스교회의 DNA를 계승해, 앞으로도 교회의 주요사역인 ‘4/14 윈도우 운동’의 주역으로 헌신할 것이라고 교회측은 밝혔다.

이날 임직예배는 허연행 목사의 인도로 김창만 목사(AG 한국총회 동충부지방회 회장)의 기도, 김재룡 목사(AG 한국총회동충부지방회 부회장)의 성경봉독, 프라미스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후, 김남수

원로목사가 ‘충성된 일꾼’(딤후 1:12-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임직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결단 할 것과 계속해서 이뤄질 사역에 대한 헌신과 수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랜디 브룩스의 봉헌 찬양, 임계주 목사(전 AG 한국총회 동충부지방회 회장)의 봉헌기도로 1부 임직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임직식은 허연행 목사 인도로 협동장로 6인의 취임식과 76인의 권사 임직식, 안수위원장인 김영철 목사(AG 한국총회 동충부지방회 회장)의 인도로 6인의 장로 장립식과 23인의 집사안수식이 이어졌다.

임직식 후에는 이만호 목사(뉴욕교협 회장)와 김명옥 목사(AG 한국총회 총회장)의 축사, 이광희 목사(전 AG 한국총회 총회장)의 권면, 최철한 장로의 답사후 김남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프라미스교회〉

2월 신규아동결연 11명, 단기선교 10월초 예정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지난 28일 3월 월례회를 가졌다.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열린 월례회 1부 예배는 김영환 목사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 성경봉독, 특송 안경순 김사라 목사, 설교 권근주 목사, 합심기도, 축도 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권근주 목사는 “동상이몽의 제자들”(막10:35-4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엄청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된다”며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과 얼마나 동심일체가 돼 있는가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한다. 욕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 지속적으 그 자리를 지킴으로 승리하는 사역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합심기도는 △미동부국제기아대

책기구 회장 및 회원들을 위해 △결연아동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콜롬비아-김혜정 선교사, 페루-김종원 최은실 선교사, 코트디부아르-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과테말라-장경준 박윤영 선교사) 제목으로 김영환 목사가 인도했다.

2부 회무는 회장 유상열 목사의 개회기도에 이어 전희수 사무총장이 사역보고 했다.

전 사무총장은 2월 신규 아동결연 11명을 보고하고, 10월초로 예정된 2018년 과테말라 단기선교팀 모집을 공고했다.

유상열 목사는 웹사이트에 콜롬비아 선교편지를 올린 것을 알리고 각 회원들에게 월별 사역사항을 이메일이나 메일을 통해 보고할 것을 공지했다.

이날 폐회기도는 박진하 목사가, 선교기도는 이종명 목사가 맡았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4월 월례회는 4월 25일(수)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유원정 기자)

들을 방문해 후원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석 목사는 이번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지역 배분과 지역 정리를 잘하면 내년에는 더욱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평가회에는 15개 지역 준비위원장이 헌금 등을 갖고 참석했다.

이날 5개 지역을 제외한 헌금 총액은 15,728달러로 2017년 13,089달러보다 증가했으며 2016년 19,085달러보다도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뉴욕교협은 연합예배에 총 2,200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뉴저지교협(회장 윤명호 목사)은 지난 5일 뉴저지동산교회에서 평가회를 갖고 이번 연합예배에 총 1,331명이 참석했으며 헌금총액도 1만1천 달러로 최근 10년 새 최고액이라고 밝혔다.

뉴저지교협은 11개 지역에서 한 교회씩을 추천받아 오는 6월 열리는 호산나 전도대회에서 전달하기로 했다. 후원금은 1개 교회에 1천 달러씩 1회성이다.

(유원정 기자)



RCA뉴욕연합회 주최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강사 민경설 목사 “하나님의 임재” 강조 RCA 뉴욕연합회 주최 “전도동력 세미나”

RCA 뉴욕연합회(회장 박준열 목사)가 주최한 “평신도 전도동력 세미나”가 4월 6일 저녁부터 3일간 뉴욕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열렸다. 또 목회자 대상 세미나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서울 광진교회 담임목사인 강사 민경설 목사는 예상통합 총회 전도학교 교장을 7년째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5년간 평신도 13만명과 목회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전도동력 세미나를 인도한 바 있다.

세미나는 박준열 목사 사회로 김정국 목사의 기도 후 시작했다.

민경설 목사는 2명으로 광진교회를 개척해 재직 1만명의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행복한 목회자가 돼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행복하려면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목사는 “전도자의 하나님의 임재훈련”이라는 주제의 강에서 주님의 임재훈련이 하나님 사역을

위한 최고의 훈련방법임을 역설했다. 다음은 세미나 요지.

1. 예수님의 제자훈련(막3:13-15):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제자훈련 목적)은 ①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은혜 받고) ②전도 ③귀신축출 권세(전도)이다. 2. 주님의 임재훈련 기본이론: ①부활의 주님(고전3:16, 요일4:13) ②성령의 내주의 확신(고후13:5) ③내주하신 성령님과 교제(엡6:18) ④실제교제 방법(시6:8, 행2:25-26) 3. 실제 하나님의 임재훈련방법: ① 모든 일의 일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로 해야 한다(롬12:1) ②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훈련의 틀이 필요하다(시16:8) ③구체적 훈련방법(친구나 사람을 만날 때, 식사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산책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나쁜 생각이 들 때, 평상시 일을 할 때) ④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치려야 할 노력 ⑤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가 주최한 부활절 연합찬양제를 마치고 출연진들과 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지 탐방 후원 뉴욕목사회 2018 부활절 연합찬양제

뉴욕목사회가 주최한 2018 부활절 연합찬양제가 부활주일인 1일 저녁 5시30분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목사회 회장 문석호 목사는 이 연합찬양제가 “오는 5월 29일 출발하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지 탐방을 돕고 또 장려 사업(목회자 자녀)을 비롯한 각종 선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부활의 기쁨을 다양한 형태의 찬양과 연주로 함께 즐거워하는 찬양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찬양제는 이준성 목사(총무)의 감사 및 환영의 말씀으로 시작돼

박태규 목사(부회장)의 기도에 이어 효신리틀교회, 엘토색소폰 듀오, 가야금연주 및 국악찬양, 신광교회 아가파오중창단, 아미제앙상블, 소프라노 박진원, 중창단, 오카리나 솔로, CBSN방송중창단, 피아노 트리오, 랜디브룩스와 조공자 듀엣, 뉴욕장로성가단, 지영길 테너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서 이희선 목사(목사회 수석총무)의 헌금기도, 헌금송 에스라선교회, 광고 김주동 목사(서기), 연합찬양대(호신장로교회), 할렐루야 합창, 이재덕 목사(기획위원장)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2018 남가주 지역 연합새벽예배 일제히 열려

2018년도 남가주 지역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4월 1일 새벽 각 지역에서 일제히 열렸다.

△LA동부교회협의회(회장 최준우 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이승준 목사)에서 열린 LA동부지역 연합예배는 최준우 목사(엠마오장로교회) 사회로 시작, 송재호 목사(할렐루야교회)가 기도했으며 동부교협 연합찬양대가 특송했다.

이어 김지성 목사(글로벌선교교회)은 ‘부활신앙’(고전15:17-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지성목사는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기독교의 기초이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된다. 예수그리스도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기독교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아침이길 바란다. 부활은 우리 삶에 있어 소망이자 진정한 진리다. 부활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평생을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가 ‘미국과 조국을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가 축도했다.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회장 차권희 목사): 감사한인교회(담임 목사 김영길)에서 차권희목사가 예배 인도를 맡았고 감사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됐다. 찰스김 목사(회계)가 대표기도했으며, 김종현 목사(증경회장)가 ‘부활과 생명’(11:25-26)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하며 이 부활과 생명의 신앙으로써 이 말세와 종말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자”고 전하며 “여러분들은 다 이기를 가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순태환 목사(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안병권 목사):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이상훈 목사의 사회로 김현수 목사가 대표 기도하고, ‘기뻐 노래하라’는 제목의 찬양을 연합 성가대원들이 불러 큰 은혜를 끼쳤다. 이어서 안병권 목사(사우스베이연합회 회장)가 ‘복음의 부활 소식’(고전15:12-19)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김관중 목사, 김우준 목사 윤석형 목사가 등단해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최학량 목사의 축도로 연합예배 순서를 모두 마쳤다.

△벤츄라카운티교역자연합회(회장 이정구 목사): 씨미밸리한인교회(담임 반재근 목사)에서 반재근 목사 인도로 시작, 이상영 목사(카라리오연합감리교회)가 기도했으며 권혁래 목사(카마리오열방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믿으라’(요 11:23-27)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으며 이정구 목사(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가 축도했다.

권목사는 “요즘 신앙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믿음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의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지적하며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무덤에서 살아 나올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능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회장 서명성 목사): 샌디에고소망교회(담임 이창후 목사)에서 이창후목사 인도로 박용관 목사(샌디에고 베다니교회)가 기도했으며 연합성가대가 ‘기쁜 날 부활의 날’이란 제목의 찬양을 했다 이어 심규섭 목사(줄라비스타한인장로교회)가 ‘그대, 부활의 주와 사는가’(눅24:8-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강용훈 목사(샌디에고연합장로교회)가 축도했다.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 남가주웨슬리교회(담임 박혜성 목사)에서 박혜성 목사 사회와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 손상현 목사(두란노교회)가 기도, 박종길 목사(백두암강변선교회)가 성경봉독했으며 연합찬양대 찬양에 이어 구진모 목



2018 남가주지역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남가주 각지역에서 일제히 열렸다

사(언약교회)가 ‘부활신앙’(요 11:25-2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특별기도 순서를 가졌는데 박신철 목사(인랜드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한국, 미국)’, 이희철 목사(갯스윌교회)가 ‘인랜드지역 복음화와 다음세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기도 인도했으며 윤석길

목사(에덴선교회)가 축도했다.

△OC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박재만 목사(남가주순복음교회) 사회와 미주비전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 민승기 목사(새생명교회)가 기도했으며 윤우경 집사(미디아위원장)가 성경봉독, 은혜한인교회 은혜중창단이 특송

했다. 이어 권혁빈 목사(얼바인은누리교회)가 ‘돌이킬 수 있다’(눅 9:21-2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조현영 목사(큰빛감리교회) 사회로 특별기도 순서를 가졌는데 김기동 목사(중만교회)가 ‘미국과 한국의 영적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창훈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가 ‘교회갱신과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해’, 이관우 장로(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가 ‘OC지역 교회의 연합과 복음화를 위해’, 사이몬서 목사(큰빛감리교회 EM)가 ‘다음세대의 비전과 헌신과 부흥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 인도했으며 윤성원 목사(이사)가 축도했다.

△빅토밸리한인목사회(회장 김송국 목사): 성안교회(정철 목사)에서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사회로 열였으며 강성수 목사(빅토밸리복음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고전15:19-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송국 목사(새생명한인교회)가 축도했다.

이외에 샌퍼난도밸리 지역은 벨리하나로교회(채효기 목사)에서, 실비치 지역은 실비치커뮤니티교회(윤장영 목사)에서 연합예배를 열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 골프대회 성황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지난 2일 부에나파크 로스코요테스 골프클럽에서 발달장애 인식 개선과 기금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메디컬그룹(회장 차민영)의 타이틀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국 테니스의 레전드 이형택 선수와 에이미조 프로 등 164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250여명이 모인 저녁만찬은 장애인들로 구성된 하모니아 오케스트라(지휘 전용태) 무대가 있었으며 골프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로사장 소장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갖게 된 골프대회와 저녁 만찬행사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이날을 같이 축하해줘서 감사하고 공연을 함께 봐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제5회 소망포럼이 라구나우즈 빌리지에서 개최됐다

소망소사이어티 제5회 소망포럼 개최

소망 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에서는 4월 5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라구나 우즈 빌리지에서 제 5회 소망 포럼을 개최했다.

라구나우즈빌리지한인회 의 요청에 따라 열린 이번 포럼의 주제는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장례절차와 상속: 가족을 위해 더 미루지 마세요”로 관련 전문가 3명이 각각

서부교계 게시판

창립15주년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성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 창립 15주년 기념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가 15일(주) 저녁 5시
소망선교회(옛 미주복음방송 건물 5층, 621 S Virgil Ave)에서 갖는다.
▲문의: (213)384-5232

사랑의빛선교회 설립25주년 기념부흥회
사랑의빛선교회(담임 윤대혁 목사) 설립 25주년 기념 부흥회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주제로 13일(금)부터 15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박은조 목사(한국 은혜샘물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3일(금) 오후 7시45분, 14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15일(주) 1-3부 예배.
▲문의: (626)744-9191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 집회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회장 김희창)는 국가와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집회를14일(토)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워싱턴길과 웨스턴길 북쪽)에서 갖는다. 강사는 워드쉐어 미주대표인 강태관 목사(육군군목 소령 제대).
▲문의: (213)268-9367

남가주사랑의교회 임직 및 은퇴감사예배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교회설립 30주년을 맞아 임직 및 은퇴감사예배를 15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714)772-7777

라팔마연합감리교회 교육관 헌당예배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 교육관 헌당예배가 15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714)226-0300

굿네이버스 나눔찬양 콘서트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는 굿네이버스 한 생명 살리기 나눔찬양 콘서트를 22일(주) 오후 2시, 4부 예배 시간에 갖는다. 이번 콘서트는 굿네이버스 나눔대사인 찬양사역자 주소가 씨가 출연한다.
▲문의: (408)263-5100



씨니 박 부에나 팍1지구 시민원 후보, 후원금 마련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인사회에서 늘어난 시신기증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시신 기증자 상황과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디그니티 메모리얼에서 나온 루베 마티즈 매니저와 조오텀 씨는 장례 준비의 중요성과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장례업체를 선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상속전문 월터최 변호사는 최근 에 개정된 메디컬 관련 상속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상속법이 어떻게 다른지, 주택이나 기업, 현금 등 남급 유산이 있을 경우, 미리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해 놓아야 사후에 유족들이 시간과 재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관련업체 및 후원사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각종 정보와 선물, 진료료 등을 제공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한미연합회는 지난 4월 2일 한인타운 주민 데이빗 김 씨를 모시고 LA시 도시계획국 주최 도시 개발 공청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한인 커뮤니티에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인커뮤니티 공청회 참석, 목소리 높여야” 한미연합회, 도시개발공청회 참여방법 안내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가 LA시 도시계획국이 주최하는 도시개발공청회 참여 방법을 한인들에게 알리고자 4월 2일 한인타운 주민 데이빗김 씨를 동반,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시개발 공청회 안내 메일은 개

유자 혹은 세입자에게 보내진다. 메일에는 개발계획 주제, 프로젝트 허가 및 자격조건, 공청회 시간과 장소, 프로젝트 의견 접수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공청회에서는 커뮤니티 거주자들이 피드백을 부여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기록

으로 남겨진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데이빗 김씨는 최근 한인타운 듀이 애브뉴(Dewey Ave) 인근에 들어설 호텔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사 표현을 하고자 한미연합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얼마 전 LA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준영 사무국장은 “현재 한인타운에 40개가 넘는 프로젝트(대부분 상업용 빌딩, 호텔, 렌트용 아파트)가 진행될 예정인데 많은 한인들이 공청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의사표현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공청회에 참석해 주변 거주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 표출 및 질문을 하면서 의사 표현을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한인 커뮤니티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기독교인 절반 “지난 1년간 전도한 적 없다” 19세 이상 성도·목회자 800명 설문 조사

기독교인 2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전도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예배 참석을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월간지인 ‘목회와신학’(4월호)은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국내 기독교인(성도) 500명과 목회자 300명 등 800명을 대상으로 신앙 실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29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도 경험’ 유무에 대해 응답자 50.1%는 ‘없음’이라고 답했다. ‘

전도는 했지만 (교회)출석시키지는 못함’이 34%였고, ‘전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복음 전도’와 관련, 성도 10명 가운데 7명 정도(71.4%)가 ‘복음 전도는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복음 전도법을 가르친다는 목회자는 91%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신국원(총신대 신학과) 교수는 “한국교회가 신앙 성숙에 소홀한 나머지 전도의 자신감을 잃은 것이 전도 노력의 저하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활동으로는 설교(38.2%)

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성경 관련 교육(23.7%), 수련회·집회·성회(15.6%), 구역 모임(7.7%) 등의 순이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강조하는 사안으로 ‘예배 참석’(3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성경읽기(15%)와 기도(11%), 성경공부·연구(14%), 묵상(13.3%) 등이 뒤를 이었다.

성경 읽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일주일애 한 차례 읽는다(27.7%)’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 2-3일(22.5%) 매일(14.8%) 등의 순이었다. ‘읽지 않는다’는 응답도 20.8%에 달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 이상(24.5%)이 가장 많았다. 교회 예배 참석 횟수는 월 3-4회(37.8%)가 최다였다. 주일 예배를 주로 드린다는 얘기다.

선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박제민 팀장은 “종교기관은 다른 기관보다도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게 마땅하다”며 “하지만 종교기관도 똑같이 부패하거나 오히려 사회 개혁에 발목 잡는 모습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젊은 층의 종교 불신과 관련,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봉착한 문제에 대해 종교로부터 도움 받는 게 없다는 인식이 녹아 있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은혜 장신대(기독교윤리학) 교수는 “기성세대의 신앙이 젊은이들의 일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지난해 기윤실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활동으로 ‘윤리 회복과 도덕 실천운동’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다”면서 “종교기관에 걸맞은 도덕성 회복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목사 이강평), 대학로순복음교회(담임목사 안준배), 서초순복음교회(담임목사 김창곤)에서 개최하고, 용인 새에덴교회(담임목사 소강석),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정인찬), 열방교회(담임목사 장기철), 성남 빗연광순복음교회(담임목사 김명화), 파주 새서울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호선), 오산리최자실기침금식기도원(원장 권경환), 팽택 팽택순복음교회(담임목사 강한식), 일산 든든한교회(담임목사 장항희), 충주 충주그리스도의교회(담임목사 이은대), 포항 포항안다육교회(담임목사 배진기)에서 각각 개최한다.

(기사제공: 세성협)

하나 된 모습이었다”면서 “교단장들이 내년 연합행사뿐만 아니라 통일문제까지 범교단적으로 한목소리를 내 한국사회의 문제해결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전계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총회장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통합하는 일에 하나 돼야 한다”면서 “각 교단 총무단에서 논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준비하자”고 말했다. 교단장회의는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이 총

과선교병원에서 활동하는 강지현 선교사가 뜻을 밝다가 입에 물고 있던 뜻을 삼켰다는 것이다. 고양 예도치와 한상환 선교사는 “X선 사진을 보면 못이 폐에 들어가 있다. 그 지역엔 이를 꺼내는 기구가 없어 비행기를 타고 큰 도시로 가야 하는데 그 병원 의사가 부재중이라 이를 후나 가야 한다”고 카톡을 보냈다. 그러자 한국누가회 소속 한 의사가 “폐로 들어갔다면 통풍과 함께 각혈을 하게 된다. 한두 시간 간격으로 X선 촬영을 하고 위치가 같다면 수술해야 한다”고 답글을 올렸다. 고신대병원 우철호 내과의는 “의사의 숙련도와 시설이 중요하다. 자칫 이물 제거가 더 어려운 곳으로 묻혀 버릴 수 있다”며 한국행을 권했다.

강 선교사는 고양 의선교회, 청주 상당교회, 말라위프로젝트 기도소 임의 후원으로 지난달 31일 한국에 도착,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다

한교총-한기총 통합 논의 물꼬 분열 전 2011년 만든 7·7정관을 기본 골격 삼기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공동대표 전명구 최기학 전계현 이영훈 목사)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통합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장·감·성·순·침(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등 한국교회 95% 이상 이 가입된 한교총과 내년 창립 30년을 맞이하는 한기총이 통합한다면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연합기구로 부상한다.

양측 인사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한기총 한교총 통합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자리

에서 양 기구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양 기구의 통합결의를 마치고 통합한다’ ‘(한기총) 7·7정관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문제가 되는 교단은 재심의한다’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승계한다’는 3개항에 합의했다.

7·7정관은 2011년 한기총이 분열되기 전 갖고 있던 정관을 말한다. 감리교를 제외한 건전한 한교총 주요 교단이 한기총에 몸담고 있을 때 만든 것으로 대표회장 선거에서 교단 규모에 따른 순번제 입후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통

“인권위, 기독교설립 정신 침해말라” 한동대 학부모들 3일 성명서 발표

한동대 학부모들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와 학생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76개 지역 학부모기도회 회원들은 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가인권위가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와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적 학교운영을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학문과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많은 학문기관에 대한 심대한 도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전한 영성과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고 대학 설립목적과 정체성을 지키려하는 대학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만약 국가인권위가 헌법에서 보장된 대학 자율권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에 법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부모들은 “한동대 일부 학생들이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와 낙태를 여성 권리라 주장하며 동성애와 다자성에 특강을 학교의 반대에도 불

“교회 분립 개척은 선교적 교회 모델”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교회의 분립 개척이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교적 교회란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는 전제하에 선교(전도)에 힘쓰는 교회를 말한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박종일(선교학) 박사는 지난달 31일 인천 남구 주안대학원대에서 열린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회장 최원진) 정

기학술대회(사진)에서 “분립 개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분립 개척을 선교적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전수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교회

합안의 경우, 이단문제 해결을 우회적으로 명시한 데다 법인(한기총)과 단체(한교총)의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통합 논의가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교총 관계자는 4일 “합의서는 양 기구 통합을 본격 추진해보자는 원론적 의미 수준”이라고 신중해하면서도 “기구 통합 과정에서 한기총 내 이단은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총 관계자는 “조직 내부에선 한국기독교연합과 통합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한교총으로 대화 파트너를 바꿔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법인 대 법인 통합이 아닌 법인과 단체의 결합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복잡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하고 강행했다”면서 “한동대가 특강을 주도한 학생들을 징계하자 국가인권위가 이를 인권침해라 여기고 학교를 실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가 학생 징계를 인권침해라고 속단하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임을 학부모이자 국민으로서 엄중히 밝힌다”면서 “이것은 종교 자유는 물론 기독교정신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설립은 목회자 혼자가 아니라 전 성도가 참여하는 ‘전 성도 제사장’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선교지 A국에 세워진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주바나바 선교사), ‘선교에서 상황화 작업의 필수성과 위험성, 복음주의 진영과 WCC 진영의 사례들’(김승호 교수), ‘오경과 레위기에 대한 구성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본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구자용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회 내 고위 직분자가 안수기도를 해준다거나 성령체험(입신), 신앙상담, 심방 등을 빌미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행위나 활동을 모두 종교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회 내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교단과 교회, 목회자와 성도 등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홍 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교회 내 성폭력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로 그동안 묵인돼 왔다”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와 폭력에 교회가 적극 나서 피해자를 보호·치유하며, 가해자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1운동 100주년 연합예배 연다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공동 개최기로

주요 교단 총회장들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한국교회교단장회의를 열어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한국교회 연합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은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단으로 구성된 교단장회의가 지난 1일 부활절 연합예배를 공동 개최한 것처럼 그 정신으로 내년 100주년 연합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3·1운동 당시 한국교회는

‘기독교의료인 단톡방’ 막강한 선교 도구로 ‘7000운동 네트워크’ 단톡방에 회원들 다양한 해결책 조언

전 세계 선교지에 나간 의료선교사들을 카카오톡으로 연결해 동역하는 ‘7000운동 네트워크’가 의료선교의 막강한 무기가 되고 있다. 의료 정보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등 도움을 주고받는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어서다.

7000운동 네트워크는 의료선교사 및 후원자 7000명을 모으자는 운동이다. 7000명은 엘리야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왕상 19장)에서 본을 따다. 2015년 3월 시작해 현재 600여명이 단체카톡(단톡)에 연결돼 있다.

단톡방은 ‘종합병원’처럼 전공이 다른 의사 출신 선교사들이 서로 모르는 수술법, 치료법 등을 알려주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난달 23일엔 피부병이 심한 외국인 어린이 사신이 올라왔다. 우진호 선교사는 “9세인데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 병변이 얼굴에서 시작해 몸 전체로 번졌다”며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짐바브웨 전진경 선교사가 “전염성 농가진에 급성 화농성 염증까지 있다”며 항생제와 정맥 주사를 권했다. 이 아이는 1주일 입원하고 상태가 좋아져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힘지나 오지에 1인 의사로 파견된 의료선교사들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일종의 ‘응급실 종합시스템’처럼 활용한 사례이다.

같은 달 29일에는 단톡방에 급한 소식이 올라왔다. 말라위 에바다 치

교회용어 바로 알기- ‘주일 대(大)예배’ 참석 규모와 예배 인도자 비중 다르다고 큰 예배와 작은 예배로 등급 나눌 수 없어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주일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주일 대(大)예배’라고 부른다. 경우에 따라선 주일성수의 의미가 ‘주일 대예배’를 드리는 것에 국한될 수도 있다. 급한 일이나 생계 문제로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도 중에는 ‘주일 대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온전한 주일성수를 못한다고 염려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대 예배에는 큰 예배와 작은 예배가 있을 수 없다.

예배에 해당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와카흐’나 신약의 헬라어 ‘프로스쿠네오’는 모두 경배(worship)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워십(worship)’은 고대 영어인 ‘weorthscipe’에서 온 말이다. ‘가치, 존경’을 뜻하는 ‘weorth’와 ‘행동을 유발하다’는 의미인 ‘scipe’가 합쳐진 말이다. 그래서 ‘가치(존경)를 돌린다(to ascribe worth unto)’는 뜻의 경배(worship)가 됐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받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

니라(마 18:20)”는 말씀처럼 예배는 사람의 수나 모임의 크기에 등급이 나눌 수 없다. 소수의 사람만이 모였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 자체가 예배다.

그럼 ‘대예배’는 어떻게 나을 말일까. 교역자들 중 선임 전도사나 목사가 사회를 보고, 기도는 장로 이상, 설교는 담임목사가 한다. 송영과 목도로 시작해 축도가 지 모든 예배의 순서를 갖췄기에 ‘대예배’라고 쓰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야 한다.

예배는 형식과 청중에 따라 나눌 수 없다. 찬양에 중심을 둔 찬양예배, 예전에 강조점을 둔 결혼·장례예배, 나이에 따른 어린이·청년예배 등이 있다.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차별을 둘 수 없다. 모두 같은 예배다. 다른 예배에 비해 순서가 한두 개 더 있고, 참석하는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혹은 예배 인도자들의 비중이 높다고 해서 ‘대예배’로 구분할 순 없다. 이젠 ‘주일 대예배’보단 ‘주일 11시 예배’, 혹은 ‘주일 낮 예배’로 불러보자.

독/자/간/중



박병덕 장로
빅토리아순복음교회(브라질)

“내가 만난 예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상)

실패의 끝에서 브라질 정부가 지정한 모범 레스토랑 대표가 된 박병덕 장로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는 오랜 고난의 시련을 견뎌내야 했다. 사업 실패로 빚에 쫓돌리자 ‘다 함께 죽을까’를 생각할 무렵 4살 된 딸의 두 다리가 마비되면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후로도 순탄치 않은 인생여정...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고백을 들어본다. [편집자]

을 때 체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

다.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개척교회를 세웠으니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화장품 장사가 전에 그러는데 아픈 사람이 교회 나가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낫는다고 하던데 답답하니 우리 가봅시다.”

처음 가본 교회

그날 처음 수요일예배에 참석해 목사님께 이 아이가 다리가 오그라져서 왔다고 하니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목사님도 안수기도를 해주었으나 차도가 없어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그때 잠을 자다 생각이 나 아내 목에 차고 있는 팔아이의 이불을 훑시나 하고 들춰 보았습니다. 다리를 잡고 퍼려고 하면 아프다고 울던 아이. 그 아이의 다리를 보니 어느새 쪽 퍼져 평안히 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잠자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좋아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다리를 퍼졌습니다!!” 이튿날 목사님이 오셔서 축복해주시며 성경책을 주시고 가시며 “이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온통 집안 청소하면서 먼

지 부적을 모두 떼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을 태워 버리며 그동안 어리석은 신을 섬기며 헛고생한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펄펄 울었습니다. 이 후로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고 ‘내 사무실에 전도지를 뿌린 그분의 전도의 씨가 열매를 맺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처음부터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기도를 하였지만 빛에 쫓기는 삶은 여전히 힘들고 불안하였습니다.

예수 영접 후 다가온 더 큰 시험

모든 상황으로 보아 집안과 친척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였지만 외면을 당하고 외롭게 되어버렸습니다. (문중 조상신) 왕의 후손 왕자 부마군 조상신을 섬기는 문중 장손이 바로 아버지였고 나는 그 아버지의 장손인 외아들이기 때문에 왕조 문중 신을 섬겨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문중 장손이 아버지의 박수무당 계승을 받지 않아 조상이 내린 벌이라고 돌아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상한 일은 내가 어찌다 친척집에 갔다 오면 그 집에 우환이 생겨 곳을 하고 야단법석을 떨어야 우환이 풀리간다고 ‘아주 재수 없는 사람’으로 몰려 어찌다 친척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면 문전박대로 내어쫓길 받고 뒤

에서 소금을 뿌리며 ‘악귀야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로 재수 없는 사람이 되고 악귀가 된 게 아닌가?’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되는 시련을 받게 되었지만 오직 갈 때는 교회 밖에 없어 거의 매일 새벽기도 철야를 하며 ‘나는 어떻게 해요’ 하

나님을 불렀습니다.

이민을 떠나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이민을 가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민을 가겠냐?”고 하니 그 친구가 다 수속해주고 모두 해결 터이니 여기서 이렇게 살지 말고 외국에 가 다시 재개하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조정민님 수속을 이민청에 하고 교육을 받고 여권과 비자를 받으면 부동산을 헐값으로라도 팔아 정착금을 마련해서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재산 정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채무자들에게 발각이 되어 재산정리한 것 모두 내어놓고 빚잔치로 청산을 하고 나니 결국 이민 여권만 가진 노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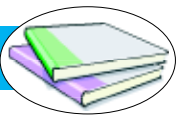
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조상이 섬기는 신을 떠나예수를 믿어 벌 받는 거라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우선 아는 사람 집에 사정을 하고 묵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 동생들이 찾아와 비행기표 4장을 주며 어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돈 한 푼도 없이 1984년 4월 28일 아무도 환송하는 사람 없이, 우리 식구는 무작정 미국항공 팬암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우리의 사연을 듣고 비행기는 갔소 국제공항을 이륙할 때 ‘내가 살아 성공하여 다시 오마’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 내며 안사람을 보니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 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딘지 모를 타국 땅을 향하여가며 내려다본 서울은 한 점에 점이 되어 시야에서 사라져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승무원이 다가와 ‘남미로 가시는 손님은 여권을 수거해 갔다가 행선지에 도착하면 돌려드립니다. 가시는 동안 불편 없이 안내원이 인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권을 수거해 가버리고 어느새 비행기는 일본 도쿄 공항에 착륙하여 내려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게 됩니다.

(계속)

새책 소개



“목회세습, 하늘 법정에 세우라”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민중기 목사가 “목회세습, 하늘 법정에 세우라”를 출간했다.

‘중대형 교회의 목회세습 반박문 95개 조항’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본서는 서론부분과 ‘목회세습의 서론적 관찰 10개 조항’, ‘성경적 배경에서 본 목회세습 10개 조항’, ‘교회사의 배경에서 본 목회세습 12개 조항’, ‘교리신학으로 살펴본 목회세습 12개 조항’,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목회세습 12개 조항’, ‘목회 윤리적 관점에서 본 목회세습 12개 조항’, ‘목회세습 극복을 위한 대안적 목회철학 12개 조항’, ‘중대형 교회의 목회세습을 부끄럽게 하는 대안적 사례 10조



‘중대형 교회의 목회세습 반박문 95개 조항’ 부제 달아

항’, ‘결론적 제언 5개 조항’ 등 총 95개 조항으로 나눠 세습과 관련된 음양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영적 아버들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맞고 있다. 세습은 단순히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에 동조하고 오류를 묵과하는 교인들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말하며 “복음의 불모지에서 천막과 관자집에서 목회의 터전을 일구었던 아버지들이 이제는 풍요와 기득권 속에서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복음의 감격에 건강과 열정과 사재를 털어 헌신해왔던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대물림이 가능한 사유화의 대상으로 잘못 생각하지 않나 심히 우려되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움도 표했다.

손봉호 목사(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세습도 개교회의 안정과 사역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느니, 교인 다수의 동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등은 궤변이다.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하나님과 교회에 큰 해를 끼친 잘못을 스스로 고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는 “세습을 반대하는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습을 반대해야만 하는 정확한 성서적, 신학적 이해와 해석”이라며 “유형처럼 번지고 있는 목회자 세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필독할 것을 권했다.

이외에도 권영경 교수(숭실대기독교학과 교수),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이상명 박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의 추천사가 수록돼 있다.

저자 민중기 목사는 서울대학교와 풀러신학교 및 한국의 각 신학교에서 강의했으며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교수로 봉직했다. 현재 아주사파서픽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충현선교교회 2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본서는 미주지역 각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성자 기자)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MBA.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Global Leadership 글로벌 리더십 / Global Business 글로벌 비즈니스 Asset/ Investment Management, 투자, 부동산투자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입학자격 :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면접

Ph.D. in Leadership

이수학점: 60 Credit Hours

Organizational /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영어시험, 면접

Ph.D. in Leadership

사역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Certificate Programs

1년 과정

1. Ministry Leadership- 전도사, 신학생, 권사, 장로, 부목사 등.
2. Pastoral Leadership- 현, 담임목사
위 과정은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과 Midwest University 에서 수료증 수여함
목회자 리더십 과정은 최고의 교수진을 통해 각지역별 특강과 프로젝트에 참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자간 네트워크, 사역협력과 친선 및 미래사역 개발, 선교협력력을 하게되는 과정입니다.
*목회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연구, 모델 사역현장 답사,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사역에 도전.

학위 취득방법 & 인증기관

학위,학점 취득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4) M.Div 졸업자는 미국 재단법인 IEA 로 부터 목사안수 가능
- Midwest University 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J-1, J-2 Visa Sponsor

인증기관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증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홈페이지 www.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53)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안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14)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의 정의, 목표 및 근간적 의미, 그리고 그 확장적 개념을 토대로, 한인 교회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자 혹은 교사”라는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세 이라기들을 통해서, 성경적 통합 교육을 위한 그들의 역량 그 첫 번째로 교사의 “소명,” 두 번째로 “신앙과 영성,” 그리고 그 세 번째로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 지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교육학적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자의 자
질 그 세 번째는 “교육학적 기술”과 연관

교육학적 기술: 효과적인 교육 수행을 위한 제반 교육이론과 실제
일반적인 교육학적 기술들도 성경적으로 변환해 교육현장에 투입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자들은 제반 교육학적 기술들에 통달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학적 기술이란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교육이론과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의 신체적, 인지적, 도덕적, 신양적, 영적 발달 과정을 잘 설명해주는 교육 방법 이론, 과정법 토론법, 시뮬레이션, 롤플레이 등등의 다양한 구체적 교수 방법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배움을 득하는가를 알려주는 학습이론들, 우리 자녀들의 일반적 혹은 개별적 삶의 상황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도와주는 상담의 기초틀, 컴퓨터,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파워 포인트, 영상 및 음악 클립 등 다양한 교육 기지재 활용의 팁들, 수업 계획서 작성 등의 수업 준비 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수업 운영 및 진행의 노하우 및 유의점들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격적 통합교육과 위에 언급한 교육학적 기술 간의 상관관계는 “소명, 신앙과 영성,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지식, 그리고 삶에서의 도덕적 신양적 모범” 등의 교사의 자질들이 성격적 통합교육에 대해 가지는 상관관계에 비해서 특별하게 고유하거나 특출 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성격적 통합 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질들 중 하나로 교육학적 기술이 거론된 것 일까요?

먼저는, 그것이 어떠한 수식어로 규정

되든지 상관없이 “교육”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기술에 통달해 있는 것은 교사의 덕목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일반 교육을 행하든, 교회 교육에 몸담고 있든, 특별히 성경적 통합교육을 하고자 하든, 그것이 “교육”인 한에서는, 반드시 교육학적 기술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태도가 좋고, 지식이 있다 한들, 교육학적 기술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풍성한 배움을 가져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진귀한 식재료들과 양질의 조리도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기능적으로 요리를 할 수 없거나, 정작적으로 레시피를 몰라서 맛있는 음식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 당위에 더하여 교육학

질문에 대한 답을 토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인간 이해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을 수동적으로 보는지
혹은 능동적으로 보는지, 인간의 공극의
배움은 일방적인지 혹은 쌍방향적인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보는지 혹은 죄
성을 타고나서 유한한 존재로 보는지,
다양한 형태로 배움을 얻는지 혹은 아닌
지 등등에 대한 기본 가정들에 따라 그
교육은 전혀 다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통합된 교육학적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존재로 이해하며, 이에 따라 모든 인간을 즉 학생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절차와 실행에 있어서 사랑과 정의를 구현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교육학적 기술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니다.

이슈는 우리 교사들 중 과연 몇 분이나 이와 같은 성경적으로 통합된 교육학적 기술에 통달해 계시지 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참으로 만나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통합된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기 전에, 다양한 교육학적 기술에 통달하는 것 자체도 힘들거니와 이에 더하여 교육학적 기술들 중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을 분별하여 성경적인 교육학적 기술들을 사용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교육학적 기술들을 성경적으로 변환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일에 통달할 수 있는 교사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사들 중에는 교육학적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분들
도 계시고, 교육학적 기술에 대해 간헐
적으로 인지는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인 분들도 계시고, 간혹 교육적 기
술들을 머리로는 잘 인지했지만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실천하는 것은 어려
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아주 드물
게 교육적 기술들이 잘 내면화되신 분
들이 계시지만, 그 분들마저도 실질적인
교육에 있어서 성경적인 교육학적 기술
들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 합니
다. 따라서 우리 사역자들은 성경적으로
통합된 교육학적 기술들을 우리 교사들
에게 확실하게 교육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월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삼하23:5)

다윗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지난날을 되새겨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그 옛날 약속을 기억하며 평생에 약속하신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자신은 죽지만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시면 온 세상에 가득 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감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다윗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안에서 자식뿐만 아니라

화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삼하23:6-7)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미래에 불경건한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고 불경건한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믿어집니다. 본문의 “사악한 자”라는 뜻은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무가치한 자”란 뜻으로서 하나님의 섭자(攝子)의 사랑을 고의로 거부하는 자를 말하며, 가시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밭을 주의 값

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삼하23:8)

본문은 하나님나라를 세우기 위해 충성을 다한 일꾼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기록해두십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이름을 남겨두십니다. 다윗의 왕사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그 명맥을 의식하고 충성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충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

목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삼하23:8)

다윗의 용사들은 처음에는 정말 연약한 사
람들이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이 사울이 다윗
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함께 핍박을 받은 사
람들입니다(삼상22:1,2). “모였다는 동사는 “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강조하는 히트파
엘 동사”입니다. 스스로 모였습니. 누가 모
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충성된 일꾼이 되고 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
도 예수님의 용사들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소

금 세 용사가 싸움을 돌우고(삼하23:9-10)

본문에 세 용사가 등장하는데 처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세 용사는 오히려 싸움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웠다"는 말은 "조롱하다, 능욕하다"라는 뜻으로 블레셋 군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한번 붙어 보자고 복돋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항상 실제 상황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네가입니다. 그래서 이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삼하23:11-12)

하나님나라의 용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삼마는 그 날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딱 막았습니다("딱 붙잡았습다"). 그리고 인제야 블레셋 사람들을 쳐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나라의 일꾼들은 영적인 일과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더욱더 담대합니다.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나 자신대대로 모든 소원, 모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미래의 축복을 확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해집
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
어집니다. 진정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을 그
대로 믿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
를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외치며 담대하
게 나아갑시다!

새 갈으니(삼하23:6-7)
 새 살피다가 가시나무가 보이면 가차 없이 뽑아서 불태우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지옥이 훗날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옥을 면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러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한사람이라도 더 전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애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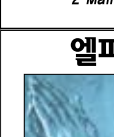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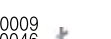
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새겨놓으시고 오고 오는
제도에 하나님나라를 위해 충성한 용사들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이 용사들이 성경에 기
록된 이유는 오직 능력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
이 얼마나 순수하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기
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외모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
음 하나로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느냐, 그 한 가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시는 일꾼들입니다.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은 서로 서로 능력과 용맹성과 갖고 있는 무기와 적과 지혜 등 모든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나마 열심히 싸웠던 손에 잡고 있던 칼을 놓으려고 해도 칼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붙어있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10절)에서 주목할 것은 ‘그날에’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을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계로 뚫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67-09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01)222-0691, 267-471-7777 Fax. (601)222-0692 3260 Morris Rd., Lands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2부예배: 오전 11:30 영 애 배: 오전 10:00 수요찬양회: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수요2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5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강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2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영애, 원지, 문지, 조예배: 오후 11:00, (금) 오후 6:00 Tel. (508)435-4579, Fax. (508)435-0092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대형찬양부: 오후 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영애, 원지, 문지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09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아침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2부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00 Tel. (206)527-9981, Fax. (206)524-1746 4040 N.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c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서. (501)426-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애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매)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951)755-1490, 사서(951)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수요2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642-0288, Fax. (215)6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2부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장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2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3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8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2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i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전 1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영매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아리조나 기도원 매매 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에 위치한 아리조나 기도원을 좋은 가격에 매매 합니다. · 대지 7.3에이커 · 건물 3동 과 예배실 · 픽업스 공항에서 50마일 거리 문의: 623-326-5532	

